

한국 고대사회 外來人の 존재양태와 사회적 역할

전 덕 재*

Ⅰ 국문초록 Ⅰ

본고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 이주한 外來人들의 현황, 존재양태,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고구려에 중국계 인사들이 적지 않게 망명하였고, 낙랑군과 대방군 병합 이후 그 유민들이 대거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고구려는 중국계 外來인의 세력기반을 그대로 존중해주다가 점차 고구려의 지배층으로 편제하였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고위관직까지 승진하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중국계 流移民과 전쟁포로에게 토지를 분급하거나 일정 기간 부세를 경감시켜주어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였다. 백제로 이주한 낙랑·대방유민들은 백제에 한자문화와 더불어 유학을 전래해주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 가문은 백제의 최고 신분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또한 백제는 개별적으로 歸化한 外來인의 경우는 戶籍에 편제하여 관리하였다. 중국계 망명 인사와 낙랑·대방유민들은 고구려와 백제의 한자문화 및 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들이 중국어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문서를 능숙하게 작성할 수 있는 학문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국 왕조에 파견한 사신으로 널리 발탁되었다. 9세기 후반에 신라의 경문왕과 헌강왕이 漢化政策을 추진하면서 國王 또는 東宮의 近侍職에 유학과 학문에 조예가 깊은 중국에서 귀화한 관료가 다수 등용되었다. 신라 當代에 중국계 인물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후예들은 고려에 중용되어 학문실력에 의거하여 관리를 등용하는 내용의 관료제 운영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6세기 중반에 백제 성왕이 반백제계 왜인을 견제하거나 왜에 군사를 요청하기 위해 왜계 백제관료들을 왜에 사신으로 파견하였고,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왜계 백제관료를 등용하였음이 확인된다. 4~6세기에 고분벽화와 토우를 통하여 고구려와 신라에 西域人으로 구성된 流浪樂인들이 來往하여 百戲와 舞樂을 공연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서역인들은 異國의 문화를 삼국에 전해주어 삼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문화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게 하는 데에도 一助하였다.

[주제어] 中國系 外來人, 樂浪·帶方遺民, 倭系 百濟官僚, 西域人, 중국인 귀화관료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IV. 왜계·서역계 外來인의 존재양태와 역할 |
| II. 삼국시대 중국계 外來인의 이주와 역할 | V. 맺음말 |
| III. 통일신라시대 중국인 귀화관료의 현황과 역할 | |

* 단국대학교 교수 / dj8794@dankook.ac.kr

I. 머리말

근대에 서양의 음악, 즉 洋樂이 들어옴에 따라 그 이전까지 연주되었던 朝鮮의 음악을 통틀어 國樂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國樂에는 明과 宋, 唐나라,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음악이 섞여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중국 및 서역의 음악과 삼국 고유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또 다른 우리의 음악, 즉 鄉樂이 정립되었고, 고려와 조선시대에 다시 唐과 宋, 明나라의 음악이 전래되어, 그것들과 鄉樂이 혼합되어 또 다른 우리의 음악인 國樂이 창출되었던 것이다. 현재 洋樂이 분명한 트로트를 힙합, 랩, 발라드, 락 등과 같은 서구의 다양한 음악 장르와 대비하여 우리의 전통가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에도 우리의 음악과 외국의 음악이 융합되어 또 다른 우리의 음악을 창출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변화, 발전에 외국과의 접촉과 교류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접촉과 교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외국에 나가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그것들을 우리나라에 소개, 전래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소개, 전래해주는 방법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인적교류만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 즉 서적과 신문, 잡지, 그리고 인터넷과 여러 영상매체를 통하여 외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늘날처럼 교통 및 각종 서적과 영상매체의 전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전근대 시기에는 직접적인 인적교류를 통해서 외국의 문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대의 경우는 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본고는 인적교류를 통해 외국의 문물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사회에서 삼국에 들어온 異邦人, 즉 外來人들의 현황과 존재양태, 사회적 역할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그들이 삼국의 역사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外來人은 물리적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移動하여 산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삼국의 팽창으로 濊와 貊, 韓人系 주민만이 아니라 漢族들이 삼국의 통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들과 그 후손들도 外來人의 개념 속에 포괄시켜 설명하였다. 반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에 집단적으로 복속된 말갈족·선비족이나 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인이 다른 국가로 이주한 경우, 그리고 삼국간의 각축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주민으로 편제된 경우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삼국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이전에 渡來한 異邦人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음을 밝혀둔다.¹⁾ 앞으로 본고가 古代에 三國에 이주한 異邦人들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족한 점은 차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질정을 바란다.

1) 본고에서는 대체로 고구려는 4세기 무렵에, 신라는 6세기 전반에, 백제는 5세기 후반 무렵에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고 이해하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다만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의 정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던 외래인에 대해서는 검토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삼국시대 중국계 외래인의 이주와 역할

1. 중국계 외래인의 현황과 존재양태

(1) 고구려로 이주한 외래인

각종 문헌과 금석문에 고구려로 이주한 이방인, 즉 외래인들에 관한 자료가 적지 않게 전한다. 고구려에 들어온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존재가 바로 고구려로 亡命한 中國系 人士들이다. 그들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高句麗로 亡命한 中國系 人士 일람

姓名	年代	망명 이유와 이후의 동향	출처	비고
高德 先祖	西晉 末	先祖는 渤海郡 출신으로 高漸離의 후예임. 西晉이 南遷하고 전란이 발생하자, 고덕의 선조가 遼陽으로 피난하여 그 지역의 世族이 됨. 고덕의 선조가 당에 歸化함.	高德墓誌銘	
王景曜 先祖	西晉 末	선조는 太原人이고, 遠祖가 海東으로 피난함. 경요의 祖父 湛은 海東에서 지조를 지키고 出仕하지 않음. 景曜의 父 排須가 唐에 귀화함.	王景曜墓誌銘	
高顧, 高撫 兄弟	西晉 末 永嘉 年間 (307~313)	西晉 永嘉 연간에 高顧, 高撫 형제가 난리를 피하여 고구려로 망명함. 高崇의 父 潛이 북위 顯祖(465~471) 때에, 高肇의 父 鸞이 北魏 高祖(471~499) 때에 동생 乘信, 그 鄉人 韓內, 冀富 등과 함께 귀부함.	『魏書』 卷83下 列傳第71下 高肇/『魏書』 卷77 列傳第65 高崇	高顧는 高肇의 5代祖, 高撫는 高崇의 4代祖임.
崔恣	319년	西晉 平州刺史 崔恣가 慕容廆의 압력을 받아 수십 기마명과 함께 집을 버리고 고구려로 망명함.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미천왕 20년 12월	
修壽, 郭充	336년	慕容皝이 慕容仁을 토벌할 때, 司馬遼東 修壽와 郭充이 고구려로 달아났음.	『資治通鑑』 卷95 晉紀第17 晉成帝 咸康 2년 正月	안악 3호분 목서에 修壽가 357년에 사망하였다고 전함.
封抽, 宋晃, 游泓	338년	慕容皝이 반란을 일으킨 崔曄 등을 진압하자, 崔曄와 常霸는 鄴으로 달아나고, 東夷校尉 封抽, 東夷護軍 宋晃, 居就令 游泓은 고구려로 달아남. 고국원왕이 전동이호군 宋晃을 339년에 전연으로 송환하자, 前燕王 慕容皝이 송환을 용서해주고 中尉를 배수함.	『資治通鑑』 卷96 晉紀第18 晉成帝 咸康 4년과 5년/『삼국사기』 고구려본기제6 고국원왕 19년	
逸豆歸	345년	慕容皝이 于文部王 逸豆歸를 공격하자, 逸豆歸가 漠北으로 도망갔다가 고구려로 달아남. 모용황이 일두귀의 무리 5千을 昌黎로 遷徙시킴.	『魏書』 卷101 列傳85 匈奴于文莫槐	

姓名	年代	망명 이유와 이후의 동향	출처	비고
慕容評	370년	前秦의 苻堅이 장군 王猛을 보내 前燕을 공격하게 하자, 전연의 太傅 모용평이 고구려로 달아남. 고국원왕은 모용평을 잡아 전진에 송환함.	『資治通鑑』卷112 晉紀第24 海西公 太和 5년/『삼국사기』고구려본기 제6 고국원왕 40년	
馮丕	407년	407년에 後燕 皇帝 慕容熙의 공격을 피해 馮跋의 형제들이 도망갔을 때, 동생의 동생 馮丕가 고구려로 달아났다가 ²⁾ 414년에 北燕王 풍발이 소환하자, 복연으로 귀국하여 左僕射를 배수받음.	『晉書』卷125 載紀第25 馮跋/『資治通鑑』卷116 晉紀第38 安帝 義熙 10년(414) 5월	
馮弘	436년	北燕王 馮弘이 북위의 압력을 피해 尙書 陽伊를 고구려에 보내 맞이해줄 것을 청하고, 다음 해에 북위가 복연을 공격하자 복연왕 풍홍이 고구려로 망명함. 고구려는 438년 3월에 풍홍을 北豊에서 살해함.	『資治通鑑』卷122 宋紀第4 太祖文皇帝(文帝) 元嘉 12년 11월, 元嘉 15년 3월/『삼국사기』고구려본기 제6 장수왕 23년, 26년 3월	
劉元貞 先祖	北燕 멸망(436) 무렵	선조는 東平憲王의 ³⁾ 후예이고, 8대조 劉𡩆은 馮燕에서 博士郎中을 역임하고, 그 자손들이 (北)燕을 따라서 遼(東)로 이주함. 祖父 劉婁는 耨薩(褥薩)을 역임하고, 父 劉順은 당에 귀화하여 北平郡太守에 追贈됨.	劉元貞墓誌銘	
豆步蕃	西魏 (535~556) 멸망 무렵	豆善富 6대조 步蕃이 西魏의 장수였는데, 河曲을 지키다가 北齊의 神武(高歡)에게 격파되어 遼海로 도망갔고, 그의 후손들이 일가를 이루고 豆氏가 됨. 두선부의 아버지 쑤이 당에 귀화함.	豆善富墓誌銘	
韓祥	孝昌 연간 (525~527)	北魏 孝昌 연간에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韓祥이 요동으로 끌려갔고, 고구려로부터 太奢(大使者)의 관등을 수여받음. 한상은 同類 500여 戶를 이끌고 東魏 또는 北齊로 망명함.	韓暨墓誌銘(大都督韓府君之墓誌銘)	韓詳은 韓暨의 父. 한기는 北齊를 거쳐 隋에서 벼슬하고, 590년에 53세로 사망함.
江果	528년경	528년경에 부친 江文遙의 뒤를 이어 江果가 安州를 統領하였는데, 6鎮의 반란군에 의하여 북위로 가는 길이 막히자, 江果가 여러 동생 및 城民을 이끌고 고구려에 귀부함. 天平 연간(534~537)에 東魏에서 江果 등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고구려가 元象 연간(538~539)에 동위로 보냈음.	『魏書』卷71 列傳59 江悅之(子文遙 文遙子果)	
高木盧 先祖	?	고목로의 먼 조상이 海隅(고구려)로 피난함. 목로가 唐에 귀화함.	高木盧墓誌銘	渤海 僭人
高遠望 先祖	?	은나라 사람 比干의 아들(고원망 가문의 시조)이 요동으로 이주하여 一家를 이룸. ⁴⁾	高遠望墓誌銘	선조에 대한 언급은 부회될 가능성이 높음.
南單德 선조	?	單德은 魯國 大夫 蒯의 후손이자 南容의 후예로 전함. 단덕은 평양에서 나고 살았으며, 자라서는 遼東에 籍을 둠.	南單德墓誌銘	上同

『삼국사기』 백제본기제3 개로왕 18년 기록에 전하는 이른바 北魏에 보낸 蓋鹵王의 親書에 ‘馮氏가 운수가 다하여 남은 사람들이 도망해오자, 추악한 무리들(고구려)이 점차 강성해져 (우리는) 능멸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언급이 보인다. 북위가 436년에 북연을 공격하자, 北燕王 馮弘이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백제본기의 기록은 이때에 상당수의 북연 사람들이 고구려로 망명하였음을 알려준다. 劉元貞 선조 역시 이때에 고구려로 망명하였음이 확인된다. 고구려는 馮弘이 평소 고구려를 업신여기고, 여전히 政刑과 상벌을 마치 자기 나라에서 하듯이 하므로 고구려가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을 빼앗고 태자 王仁을 잡아와 인질로 삼았는데, 풍홍이 이에 반발하여 劉宋에 도움을 요청하자, 고구려는 풍홍과 유송과의 연결을 막기 위해 北豊에서 풍홍과 그의 자손 10여 명을 살해하였다. 이밖에 宋晃과 慕容評, 馮丕, 江果 등은 고구려에 망명하였다가 이후 다시 전연, 전진 등에 송환되거나 귀국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高遠望과 南單德의 선조는 본래 고구려인이었으나 후대에 중국계로 부화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밖에 나머지 인물은 漢族이나 중국계 인사로서 고구려에 망명한 인물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고구려 미천왕이 313년과 314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하여 병합하였는데, 이에 따라 두 군에 살았던 한족 계통의 사람들 다수가 고구려 주민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다. 낙랑과 대방군 고지에서 다수의 銘文塚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고구려가 두 군을 병합한 이후에 제작된 것이 여럿 존재하였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낙랑·대방군 고지에서 발견된 紀年 銘文塚(313년 이후)⁵⁾

銘文	연대(왕조명)	출토지	비고
建興四年會景作造	316년(東晉)	황해도	
泰寧五年三月十(下缺)	327년(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용문면 복우리 2호분	太寧 연호는 3년까지 존재, 327년은 咸和 2년에 해당.
咸和十年大歲乙未孫氏造	335년(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읍	咸和 연호는 9년까지 존재, 335년은 咸康 원년에 해당.
西邑太守張君塋/建武八年西邑太守	342년(後趙)	황해남도 안악군 로남리	
建武九年三月三日王氏造/奉車	343년(後趙)	전 황해도 신천군 출토	

2) 『晉書』 卷125 載紀第25 馮跋傳에 407년에 後燕王 慕容熙를 피하여 馮跋의 형제들이 山澤으로 도망갔다고 전하는데, 공석구,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154~155쪽에서 이때 馮조가 고구려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3) 東平惠王은 後漢 光武帝의 8번째 아들이다.

4) 고원망의 아버지인 高欽德墓誌銘에 그 가문의 시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여기에 고희덕의 曾祖 高瑗과 祖父 高懷는 建安州都督을 역임하였고, 父인 高千이 당에 귀화하여 左玉鈐衛中郎을 제수받았다고 전한다.

5) <표 2>는 안정준, 「고구려의 낙랑·대방군 고지 지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a, 22~24쪽의 ‘<표 1> 낙랑·대방군 고지에서 출토된 명문전을 그대로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銘文	연대(왕조명)	출토지	비고
建元三年大歲在巳八月孫氏造	345년(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가산면 새날리	建元 연호는 2년까지 존재, 345년은 永和 원년에 해당.
建元三年(下缺)	345년(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북부면 우릉리	上同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 太歲戌在漁陽張撫夷塼 大歲申漁陽張撫夷塼 哀哉夫人奄背百姓子民憂慙 夙夜不寧永側玄宮痛割人情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 父母既好且堅典[竊]記之 趙主簿令塼勸意不臥 八月八日造塼日八十石[酒] 張使君塼 使君帶方太守張撫夷塼	348년(東晉)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리원역 부근(黃海道鳳山郡 文井面 昭封里 1號墳 출토)	
建武十六年大歲(下缺)	350년(後趙)	황해남도 신천군 용문면 복우리 8호분	建武 연호는 14년까지 존재, 350년은 永興 元년에 해당.
永和八年二月四日韓氏造塼	352년(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북부면	
永和九年三月十日遼東韓玄菟太守領修利造	353년(東晉)	평양시 평양역 구내	
元興三年三月廿日王君造	404년(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북부면 서호리(석당리)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낙랑·대방군 고지가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紀年 銘文塼에 보이는 인물 가운데 고구려의 관등이나 관직을 보유했던 경우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張君은 西邑太守, 張撫夷는 帶方太守, 修利는 遼東·韓·玄菟太守였다고 전한다. 장군 등이 전하는 명문전에 東晉 또는 後趙의 연호가 전하는 것으로 보건대, 장군과 장무이, 동리는 중국계 인사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구체적인 관직을 冠稱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왕조의 紀年이 언급된 명문전에 보이는 孫氏, 王氏, 韓氏, 王君, 會景 등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과연 樂浪과 帶方遺民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修壽와 幽州刺史 鎮의 사례가 유의된다.

안악 3호분 묵서에서 修壽의 관직이 ‘使持節都督諸軍事 平東將軍護撫夷校尉 樂浪相 昌黎·玄菟·帶方太守 都鄉侯’였다고 전한다. 修壽는 336년에 郭充과 함께 고구려로 망명하였다가 357년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안악 3호분 묵서에 그가 생전에 고구려로부터 관등과 관직을 수여받았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고, 중국 관직만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종래에 幽州刺史 鎮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로부터 관등 또는 관직을 수여받았지만, 묵서에는 그에 관하여 기술하지 않았다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어 참고된다.⁶⁾ 동수의 사례는 고구려에

6) 안정준, 앞의 논문, 2016a, 121쪽.

망명한 중국계 인사가 옛 낙랑·대방 고지에 나름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면서 존재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동수와 비슷한 사례가 408년에 사망한 덕흥리고분의 주인공 유주자사 진이다. 이 고분의 목서에 鎭의 관직이 ‘建威將軍 國小大兄 左將軍龍驤將軍 遼東太守 使持節東夷校尉 幽州刺史’였다고 전한다. 동수와 달리 鎭은 국소대형이라는 고구려 관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관직을 자세하게 적기한 것을 통하여 진 역시 고구려로 망명한 중국계 인사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고구려로 망명한 사람들이 고구려 내에서 중국의 관직을 칭하고 있었던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西邑太守 張君과 帶方太守 張撫夷도⁷⁾ 고구려에 망명한 중국계 인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張撫夷가 幽州 漁陽郡 출신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물론 遼東·韓·玄菟太守를 칭한 修利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밖에 중국의 관직을 칭하지 않은 王君과 會景, 姓氏만이 전하는 사람들은 낙랑과 대방유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⁸⁾ 낙랑과 대방 고지에서 발견된 명문전에 보이는 낙랑·대방유민 가운데 王氏와 孫氏, 韓氏가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인 가운데 이들 성씨를 칭한 인물은 낙랑·대방유민의 후예들이었다고 보아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고구려인 가운데 王氏, 韓氏, 孫氏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낙랑·대방유민과 그 후손 일람

성명	연대	관등·관직·소속 부	출처	비고
王山岳	東晉時期 (317~420)	第二相	『三國史記』雜志第1 樂	七絃琴 法制를 고치고 100여 곡을 만들어 연주함.
王高德	평원왕대 (559~590)	大丞相	『海東高僧傳』釋義淵/『大正新脩大藏經』第550冊 史傳部2 續高僧傳 卷8 義解篇4 正紀14 附見2 齊 大統 合水寺 釋法上傳6	
王文林	?	西部將	『遺山集』卷16 王黃華墓碑 ⁹⁾	
王吉勝	724년	從七位下	『續日本紀』卷9 元正天皇 神龜 元年 5월 辛未	승려
王彌夜大理	761년	上部	『續日本紀』卷23 淳仁天皇 天平寶字 5年 3월 庚子	豊原造를 賜姓함.
王安成	761년	後部	上同	高里連을 賜姓함.
王虫麻呂	761년	上部	上同/『新撰姓氏錄』左京 諸蕃 高麗	豊原連을 賜姓함.

7) 撫夷는 이름이 아니라 ‘夷를 按撫한다’는 뜻으로서 관직의 일종이라고 보인다.

8) 李仁德墓誌銘에 인덕의 선조는 樂浪의 명망 있는 족속이었고, 인덕의 부친 甲子가 당에 귀화하여 定州別駕를 추증받았다고 전한다. 그리고 李隱之墓誌銘에 唐에 귀화하여 神龍 원년(705) 洛陽上林坊에서 사망한 은지의 선조는 요동 사람이었고, 晉 尙書令인 李胤으로부터 分枝하였으며, 은지의 祖父 敬, 父親 直이 樂浪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전한다. 이인덕의 선조는 바로 낙랑유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은지 선조가 요동사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선조가 낙랑 유민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黃華의 32代祖는 太原祁人으로서 後漢末의 戰亂을 피해 遼東으로 옮겨 거처하였고, 그후 요동이 전란에 휩싸이자, 그의 후손

성명	연대	관등·관직·소속 부	출처	비고
王仲文	?	從五位下	『新撰姓氏錄』左京 諸蕃 高麗	승려
韓法史	?	高麗國 帶方國主	『新撰姓氏錄』右京 未定雜姓	韓明史의 先祖
孫漱	438년	將軍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제6 장수왕 26년 3월/『宋書』高句驪國傳	劉宋의 王白駒가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將軍 高仇를 죽이고, 孫漱를 사로잡음.
孫代音	645년	白巖城 城主	『資治通鑑』卷198 唐紀第14 太宗 貞觀 19年 6月/『三國史記』高句麗本紀第9 寶藏王 4년	『舊唐書』와 『新唐書』高麗傳에 白崖城 城主 孫伐音으로 전함.

『三國史記』와 여러 문헌에 전하는 王山岳, 王高德, 王文林은 낙랑·대방유민이거나 그 후손들로 고구려의 지배층에 편입된 존재였을 것이다. 일본측 자료에 전하는 王吉勝, 王彌夜大理, 王虫麻呂, 王安成, 王仲文, 韓法史 등도 역시 낙랑·대방유민이거나 그 후손들이었을 것이며, 그들이 언제 일본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부 사람이 소속 부를 관창한 것으로 보건대, 그들은 평양에서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韓法史의 경우는 帶方國主였다고 전하는데, 그는 대방군의 지배층이었다가 대방군 병합 후에 고구려에 편제되었고, 그 이후에 한법사의 후손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이해된다. 손수와 손대음의 경우, 낙랑·대방유민의 후손이었다고 확증할 만한 자료가 전하지 않지만, 낙랑·대방유민 가운데 孫氏가 존재하는 바, 손수와 손대음은 낙랑·대방유민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¹⁰⁾ 한편 『宋書』高句驪國傳에 宋 少帝 景平 2년(424)에 璉, 즉 장수왕이 長史 馬婁를 송에 파견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또한 世祖 孝建 2년(455)에 장수왕이 長史 董騰 등을 송에 파견하였다고 전한다. 馬婁와 董騰 역시 중국계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이상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중국계 인사 및 고구려에 편입된 낙랑·대방유민과 그 후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중국계 외래인들은 고구려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 주지하듯이 고구려는 4세기 이후에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한 大城에 守事(守, 太守)를, 그 예하의 작은 城과 村에는 宰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¹²⁾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낙랑과 대방 고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지방통치조직 체계로 지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이다. 한동안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 고지를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옛

들이 東夷 각처에 散在하였다고 한다.

10) 안정준, 「당대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 고구려 유민 일족의 현황과 그 가계 기술-고구려 유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언」, 『역사와 현실』 101, 2016b, 45~47쪽.

11) 중국 집안시 북쪽에 위치한 禹山下 3319호 무덤에서 丁巳銘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명문 내용은 ‘太歲在丁巳五月廿日爲中郎及夫人造蓋墓瓦 又作民四千 餼食△用盈時興詣 得享萬世’이다. 이 무덤은 대형의 계단식석축종으로서 그 내부는 전축분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방의 벽면은 회색의 벽돌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문에 보이는 정사년은 357년으로 추정되고, 中郎을 역임한 인물과 그의 부인이 이 무덤에 합葬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당은 秦代에 설치되어 漢代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우산하 3319호 무덤의 주인공이 중랑직을 역임하였고, 거기에서 부장품으로 東晉系 靑瓷와 步搖 등이 출토된 점을 미루어 보건대, 이 무덤의 주인공은 중국계 망명인으로 짐작된다고 하겠다(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11, 216~217쪽; 안정준, 앞의 논문, 2016a, 54~55쪽).

12)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524~535쪽.

군현지배층과 중국계 망명인들이 낙랑과 대방 고지를 자치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이해하였다.¹³⁾ 4세기 초반 이후에도 여전히 낙랑과 대방유민들이 전축분을 조영하였고, 게다가 거기에 중국 왕조의 연호를 명기한 명문 전을 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관직을 여전히 칭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옛 군현지배층과 망명인이 그들의 세력기반을 유지하면서 낙랑과 대방 고지에 거주하는 漢人들을 통치 또는 관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고구려왕의 통제를 받은 존재로서 낙랑과 대방 고지에 안치된 중국계 망명인들과 이전부터 거기에 거주하였던 漢人들을 고구려 국가에 협조하게끔 유도하고, 나아가 그들을 고구려의 통치조직 내로 편제시키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여럿 제출되었다.¹⁴⁾ 이와 더불어 근래에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 고지 가운데 고구려의 점령 과정에서 토착 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비교적 강력한 거수충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중국에서 망명한 대규모 외래인들을 안치시켜 그 지역을 개발하고 수취 기반을 확대하려고 의도하였고, 이때 중국계 망명인들을 고구려 지방관과 漢人系 주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위임통치자로서 활용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동수와 유주자사 진이 비교적 넓은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그 밖의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집단에 한하여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참고된다.¹⁵⁾

본고에서 필자는 5세기 초반까지 중국계 망명인 및 낙랑·대방군의 지배층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구려왕의 통제 하에서 낙랑과 대방 고지의 漢人에 대한 통치에 일정 정도 간여하였다는 사실만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고, 더 이상 고구려의 낙랑과 대방 고지에 대한 통치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 망명한 중국계 인물이 나름대로 고구려로부터 그들의 세력기반을 보장받았음을 시사해주는 자료가 더 발견된다. 먼저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天下가 어지럽고 이반하여 戎狄이 疆域을 엿보았다. 孝昌 연간(525~527)에 (夷狄의) 제어에 실패하니 高麗의 侵寇를 받아 (공은) 遼東에 끌려와 머물게 되었다. 비록 (고려는) 달려와서 복속한 夷狄이었지만, 크게 서로 이끌어 접대하였다. (공의) 명성을 흠모하고 德을 우러러보아 예로서 대우함이 恒品과 달랐다. 平壤의 교회를 밟지 않았는데도 太奢(大使者)의 職을 배수하였다. (공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음이 本心에서 나와 병을 핑계 대고 사양하며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절개를 지킴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이름이 아니겠는가. 華夏의 人民이 안정되고 새로운 왕조가 다시 들어서니, 同類 500여 戶를 이끌고 조정에 귀의하여 나라를 받들었다. 정성과 충절을 가상이 여겨서 爵으로 그 공을 보상하여 龍城縣令을 배수하였다.¹⁶⁾

13) 武田幸男, 「德興里古墳壁畫被葬者の出自と經歷」, 『朝鮮學報』 130, 1989; 공석구, 「안악 3호분의 목서명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21, 1989; 공석구, 「덕흥리 벽화고분의 주인공과 그 성격」, 『백제연구』 21, 1990.

14) 임기환,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경영」, 『역사학보』 147, 1995(『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김미경,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진출과 그 지배형태」, 『학림』 17, 1996; 김미경, 「고구려 전기의 대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여호규,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2009.

15) 안정준, 앞의 논문, 2016a.

16) 大都督韓府君之墓誌(韓暨墓誌銘), “天下亂離 戎狄窺疆 孝昌失馭 高麗爲寇 被擁遼東 雖奔服爲夷 大相罔接 欽名仰德 禮異恒

위의 기록은 平州 屬吏 출신 韓詳의 행적을 기술한 韓暨墓誌銘에 전하는 내용이다. 韓詳은 묘지명의 주인공인 韓暨(537~590)의 부친이다.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孝昌 연간(524~527)에 고구려가 북위를 침략한 기사가 전하지 않는다. 종래에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여 韓詳이 魏末에 유이민이 대거 고구려로 이주하였을 때에 자발적으로 고구려에 귀화한 사람으로 이해하였다.¹⁷⁾ 韓詳은 520년대 중반에 고구려로 들어와서 이후에 동위(534~550) 또는 북제(550~577)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상이 동위 또는 북제로 돌아갈 때에 同類 500여 호가 행동을 같이하였다고 하였다. 同類의 성격과 관련하여 江果가 528년경에 고구려로 망명할 때에 여러 동생 및 城民을 이끌고 왔다는 사실과 더불어 北魏 高祖(471~499) 때에 高肇의 父親 颺이 동생 乘信과 鄉人 韓內, 冀富 등과 함께 북위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¹⁸⁾ 이에서 중국계 인사가 고구려로 망명할 때, 그의 종족과 鄉人,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城民 등이 함께 행동하였고, 고구려는 망명 인사에게 그들에 대한 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상과 함께 동위 또는 북제로 돌아간 同類 500여 호는 바로 한상과 더불어 고구려에 귀부한 宗族 및 鄉人, 그리고 그가 屬吏로서 재직할 때에 다스리던 城民들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 고구려는 韓詳에게 大使者의 관등을 수여하여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⁹⁾ 물론 江果와 高崇·高肇의 선조에게도 고구려에서 관등을 수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중국 문헌에서 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제3 개로왕 18년(472) 기록에 전하는 개로왕의 친서에 ‘지금 璉(長壽王)은 죄가 있어 大臣彊族을 죽이고 살해하기를 그치지 않아 죄가 가득 차고 악이 쌓여서 백성들은 흠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멸망시킬 적기로서 손을 쓸 때입니다. 또한 馮族의 군사와 말들은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을 가지고 있으며, 낙랑의 여러 郡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고 있으니, 천자의 위엄이 한 번 떨치면 정벌은 있을지언정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여기서 馮族은 바로 436년 북연이 멸망할 때, 풍홍과 함께 고구려로 망명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기록을 통해서 472년 무렵에도 고구려에 망명한 북연 사람과 낙랑·대방유민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옛 지배층을 매개로 하여 그들을 통제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고구려에 망명한 인사 또는 낙랑·대방유민의 후손 가운데 王山岳은 제2상, 王高德은 大丞相, 王文林은 西部將, 孫漱는 將軍, 孫代音(孫伐音)은 백암성 성주, 劉婁는 耨薩(褥薩)이었다고 전한다. 제2상은 4~5세기에 고구려에 여러 명의 ‘相’이 존재하였고, 그 가운데 서열 2위의 相이란 뜻으로 이해된다.²⁰⁾ 丞相은 南北朝

品 未履平壤之郊 拜太奢之職 非其好也 出自本心 辭之以病 竟無屈矣 執節無變 斯之謂乎 華夏人安 宗祧更立 率領同類五百餘戶 歸朝奉國 誠節可嘉 爵以酬功 授龍城縣令.”

본 묘지명의 판독과 해석은 井上直樹, 「韓暨墓誌を通してみ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六世紀前半を中心に－」, 『朝鮮學報』 78, 2001, 5~8쪽 및 안정준, 「6세기 고구려의 北魏末 流移民 수용과 ‘遊人」, 『동방학지』 170, 2015, 18~19쪽을 참조하였다.

17) 안정준, 위의 논문, 20쪽.

18) 『魏書』 卷83下 列傳第71下 高肇條에 高肇의 父 颺이 北魏 高祖(471~499) 때에 동생 乘信, 그 鄉人 韓內, 冀富 등과 함께 北魏에 歸附하였다고 전한다.

19) 이성제,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2005, 149~155쪽.

에서 정무를 총괄하던 관직이었다. 고구려 말기에 최고의 귀족회의를 評臺라고 불렀고, 그 구성원은 對盧官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²¹⁾ 이에 따른다면, 고구려의 대로는 중국의 승상, 대대로는 대승상과 대비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 중국인들이 고구려의 대대로 또는 그에 버금가는 고위 관직을 중국식인 대승상으로 改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구당서』 고려전에 高延壽를 北部 褥薩, 高惠眞을 南部 褥薩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그리고 『冊府元龜』 帝王部 來遠 貞觀 25년 기록에서는 고연수는 後部軍主, 고혜진은 前部軍主였다고 하였다. 한편 『삼국사기』 개소문열전에는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東部大人이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자료들과 西部將이 ‘서부의 將帥’란 뜻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고려하건대, ‘西部將’은 ‘西部 褥薩 또는 大人’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백암성은 옥살이 파견된 遼東城보다 규모가 작았으므로, 處閭近之가 파견된 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참고된다.²²⁾ 이에 따른다면, 백암성 성주인 손대음의 정확한 직명은 處閭近之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왕산악과 왕고덕은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고, 왕문립과 유루는 옥살을, 손대음은 처려 근지를 역임하였던 셈인데, 이들을 낙랑·대방유민 또는 중국에서 망명한 집단의 대표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고구려왕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고, 고구려의 관리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낙랑·대방유민 및 망명한 중국계 인사의 후예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지배 기반에서 유리되어 개별적으로 고구려의 관리로 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고위직까지 승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 중국계 망명 인사 및 낙랑·대방유민 후손들을 고구려의 통치질서 속에 적극 편제시키려고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²³⁾

지금까지 중국계 망명 인사 및 낙랑·대방유민 가운데 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존재양태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다. 그런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고구려에서 살았거나 또는 流移民으로서 고구려로 이주하여 살았던 중국계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제8 영양왕 23년(612) 기록에 于仲文과 宇文述이 이끄는 隋軍이 遼河를 건넌 때에 무릇 30만 5천 명이었는데, 수군이 遼東城에 다다랐을 때의 수는 겨우 2천 7백 명에 불과하였다고 전한다. 고구려본기제8 영류왕 5년(622) 기록에는 고구려가 전쟁포로 만여 명을 모아서 당에 보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어, 고구려에 전쟁포로로 잡힌 隋人의 숫자가 몇 만을 헤아렸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본기제6 고국양왕 2년(385) 6월 기록에 고구려가 군사 4만 명을 보내 요동군과 현도군을 습격하여 남녀 1만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고 전한다. 이밖에 광개토왕과 장수왕, 문자명왕대에 요동지역을 확보하면서 다수의 漢族이나 유목민족들이 고구려의 주민으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포로뿐만 아니라 流移民이 대거 고구려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資治通鑑』 卷106 晉紀第28 孝武帝 太

20) 여호규, 앞의 책, 2014, 469~471쪽.

21)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고구려 말기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2016, 267~271쪽.

22)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247~248쪽.

23) 낙랑·대방유민의 후손들로 추정되는 王彌也大理, 王安成, 王虫麻呂는 각기 上部, 後部, 上部 소속이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상부와 후부는 고구려 평양성의 5부 가운데 상부와 후부를 말한다고 이해된다. 이에 따른다면, 왕미야대리 등은 고구려 평양성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낙랑과 대방유민들은 집단적으로 세력을 이루어 평양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도인 평양에 거주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낙랑·대방유민 또는 그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고구려의 통치체제에 편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元 10년(385) 11월 기록에 385년 이전에 冀州와 幽州의 流民이 고구려로 들어갔다고 전한다.²⁴⁾ 또한 『北史』에는 北齊 文宣帝가 營州에 이르러 博陵人 崔柳에게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서, 魏末에 고구려로 들어간 流人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도록 칙령을 내렸고, 崔柳는 5천 戶를 돌려받고 복제로 귀국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²⁵⁾ 이와 관련하여 北魏末인 523년에는 沃野鎮 등 6鎮의 亂이 발발하여 지방 곳곳이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특히 正光 5년(524)에 營州에서 劉安定·就德興이 일으킨 반란이 平州까지 확산되자, 營州를 비롯하여 平州, 安州 등의 주민 다수가 인접한 고구려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된 견해가 제기되어 참고된다.²⁶⁾

그렇다면, 고구려에서는 유이민이나 전쟁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하였을까가 궁금해진다. 『資治通鑑』 卷196 唐紀第12 太宗 貞觀 15년 5월 기록에 陳大德이 고구려 이곳저곳을 탐문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 진대덕이 수나라 군대를 따라 왔다가 고구려에 머물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고구려에서 遊女를 隋人들의 妻로 삼게 하여 고구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게 하였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隋人 가운데 거의 반수에 이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인다.²⁷⁾ 앞에서 영류왕 5년(622)에 고구려가 전쟁포로 만여 명을 수습하여 당에 보냈다고 언급하였다. 이후에도 포로가 된 隋人들이 고구려에 적지 않게 살았을 텐데, 고구려는 그들을 遊女와 혼인시켜 고구려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자치통감』에서 隋人과 결혼한 여자를 遊女라고 표현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고구려인 처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근래에 『隋書』 고려전에 전하는 遊人을 전쟁포로가 된 隋人을 가리킨다고 이해한 다음, 3년에 한번을 내되 열 사람이 어울려서 細布 1필을 바치는 遊人稅는²⁸⁾ 바로 隋人들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세제였다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²⁹⁾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건대,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³⁰⁾ 유인세를 전쟁포로가 된 수인의 정착을 위하여 실시한 세제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고

24) 『資治通鑑』 卷106 晉紀第28 孝武帝 太元 10년 11월, “慕容農至龍城……農將步騎三萬 至令支巖 衆震駭 稍稍踰城 歸農 巖計窮出降 農斬之 進擊高句麗 復遼東玄菟二郡 還至龍城 上疏請繕修陵廟 燕王垂 以農爲使持節都督幽平二州北狄諸軍事幽州牧鎮龍城 徙平州刺史帶方王佐鎮平郭農 於是 創立法制 事從寬簡 清刑獄 省賦役 勸課農桑 居民富贍 四方流民 前後至者 數萬口 先是 幽冀流民 多入高句麗 農以驃騎司馬范陽龍淵 爲遼東太守 招撫之.”

25) 『北史』 卷9, 列傳82 高句麗, “天保三年 文宣至營州 使博陵崔柳使于高麗 求魏末流人 敕柳曰 若不從者 以便宜從事 及至不見許 柳 張目叱之 拳擊成墜於牀下 成左右雀息不敢動 乃謝服 柳以五千戶反命.”

26) 안정준, 앞의 논문, 2015, 11~12쪽.

27) 『資治通鑑』 卷196 唐紀第12 太宗 貞觀 15년 5월, “上遣職方郎中陳大德 使高麗 八月 己亥 自高麗還大德 初入其境 欲知山川風俗 所至城邑 以綏綺遺其守者曰 吾雅好山水 此有勝處 吾欲觀之 守者喜導之 遊歷無所不至 往往見中國人 自云家在某郡 隋末從軍 沒于高麗 高麗妻以游女 與高麗錯居 殆將半矣 因問親戚存沒 大德給之曰 皆無恙 咸涕泣相告數日 後隋人望之而哭者 徧於郊野 大德言於上曰 其國聞高昌亡 大懼 館候之勤 加于常數 上曰 高麗本四郡地耳 吾發卒數萬 攻遼東 彼必傾國救之 別遣舟師 出東萊 自海道趨平壤 水陸合勢 取之不難 但山東州縣 彫瘵未復 吾不欲勞之耳.”

28) 『隋書』 高麗傳,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29) 김락기, 「고구려의 '遊人'에 대하여」, 『백산학보』 56, 2000.

이밖에 안정준, 앞의 논문, 2015에서는 魏末에 고구려로 들어온 流移民을 遊人으로 이해하고, 유인세는 바로 유이민의 고구려 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세제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30) 고구려에 집단적으로 복속된 말갈족이나 선비족의 경우, 개별 가호마다 人稅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유목생활을 하는 말갈족과 선비족 등에게 농업생산물인 곡식 5石과 베(布) 5필을 부과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말갈족과 선비족에게 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유인세의 핵심 부과 대상은 바로 유목민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商人과 工匠,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

고구려에서 隋人들을 遊女 등 고구려 처녀와 혼인시키는 한편,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토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人稅를 경감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에서는 外蕃人으로 投化한 자는 10년 이상 부역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였고,³¹⁾ 일본에서도 7세기 후반에 三韓, 즉 삼국 사람으로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에게 10년간의 調稅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한 사실 이³²⁾ 참고된다. 물론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고구려의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人稅를 부과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³³⁾

(2) 백제로 이주한 외래인

『隋書』百濟傳에 백제인에는 신라와 고려(고구려), 왜인들이 섞여 있으며, 또한 中國人도 있다고 전한다. 백제 주민의 중심은 부여·고구려계 이주민과 韓族이었다. 7세기 무렵에 왜인과 중국인이 다수 백제에 거주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그런데 고구려와 달리 문헌자료에서 백제로 망명한 중국계와 왜계 인사 또는 백제로 유입된 중국계나 왜계 유이민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여러 문헌과 금석문에 전하는 人名의 '姓氏'를 분석하여 중국계 또는 왜계 백제인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계로 보이는 백제인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표 4>이다.

<표 4> 문헌과 금석문에 보이는 중국계 백제인 일람³⁴⁾

姓名	年代	관등 또는 관직	출처	비고
高壽	261년	衛士佐平	『삼국사기』백제본기제2 고이왕 28년 2월	
高興	375년	博士	『삼국사기』백제본기제3 근초고왕 30년	『書記』 편찬
張威	424년	長史	『宋書』百濟國傳	송에 사신으로 파견.
馮野夫	450년	臺使, 西河太守	上同	비유왕이 송에 사신으로 파견.
張茂	472년	司馬, 龍驤將軍 帶方太守	『魏書』百濟傳	북위에 사신으로 파견.

는 流浪者 등에게도 곡 5석과 베 5필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건대, 이들에게도 유인세를 부과하였다고 보는 편이 보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2006, 205~206쪽).

31) 唐令 賦役令第23; 仁井田陞, 『唐令拾遺補』, 東京大學出版會, 1997, 1358쪽, “諸沒落外蕃者得還者 一年以上復三年, 二年以上復四年 三年以上復五年. 外蕃人投化者復十年.”

32)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10년 8월 丁卯朔 丙子, “詔三韓諸人曰 先日復十年調稅既訖 且加以歸化初年俱來之子孫 並課役悉免焉.”

33) 『삼국사기』고구려본기제6 소수림왕 2년(372) 6월 기록에 前秦王 符堅이 사신과 승려 順道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고, 4년 기록에 승려 아도가 고구려에 왔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해(375) 2월에 僧門寺를 건립하고 그곳에 순도를 주지시키고, 伊弗蘭寺를 짓고 그곳에 阿道를 주지시켰다고 한다. 이밖에 『해동고승전』에 東晉의 승려 曇始가 孝武帝 太原(376~396) 末年에 經과 律 數十部를 가지고 遼東으로 와서 三乘의 가르침으로 三歸五戒의 법을 세워 교화하였으며, 405년(광개토대왕 15) 무렵에 귀국하였다고 전한다. 중국계 승려들이 고구려에 불교를 전래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나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34) 문헌에 보이는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해서는 정재윤,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사촌』 77, 2012 및 백길남, 「4~5세기 百濟의 中國系 流移民의 수용과 太守號」, 『동방학지』 172, 2015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姓名	年代	관등 또는 관직	출처	비고
高達	490년	長史, 行建威將軍 廣陽太守 / 假行龍驤將軍 帶方太守	『南齊書』백제전	南齊에 사신으로 파견.
楊茂	490년	司馬, 行建威將軍 朝鮮太守 / 假建威將軍 廣陵太守	上同	上同
會邁	490년	參軍, 行宣威將軍	上同	上同
王茂	495년	司馬, 行建武將軍 城陽太守	上同	上同
張塞	495년	參軍, 行振武將軍 朝鮮太守 / 行廣武將軍 清河太守	上同	上同
陳明	495년	行揚武將軍	上同	上同, 參軍으로 추정.
慕遺	495년	長史, 行龍驤將軍 樂浪太守	上同	上同
張安	5세기 말		江田船山古墳 出土 大刀銘 ³⁵⁾	
段楊爾	513년	五經博士	『日本書紀』권17 繼體天皇 7년 6월	
漢高安茂	516년	五經博士	『日本書紀』권17 繼體天皇 10년 9월	段楊爾와 교체.
高分屋	544년	施德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5년 2월	임나에 사신으로 파견.
怒唎斯致契	550년	西部 姬氏 達率	『日本書紀』권19 欽明天皇 11년 2월	왜에 불교를 전해줌.
王柳貴	554년	五經博士	上同	백제로 귀국.
馬安丁	554년	五經博士	上同	王柳貴 대신 倭로 감.
王道良	554년	施德, 易博士	上同	
王保孫	554년	固德, 曆博士	上同	
王有悽陀	554년	奈率, 醫博士	上同	
潘良豐	554년	施德, 採藥師	上同	
丁有陀	554년	固德, 採藥師	上同	
王辯那	598년	長史	『삼국사기』백제본기제5 위덕왕 45년 9월	隋에 사신으로 파견.
王孝鄰	607년	佐平	『삼국사기』백제본기제5 무왕 8년 3월	上同
王仁	?		『日本書紀』卷10 應神天皇 15년 8월과 16년 2월	太子 菟道稚郎子の 스승.
難沮	?	達率	難元慶墓誌銘 ³⁶⁾	
禰軍	?	佐平 ³⁷⁾	禰軍墓誌銘 ³⁸⁾	
陳法子 ³⁹⁾	?	既母郡佐官, 稟達郡將, 司馬, 恩率	陳法子墓誌銘 ⁴⁰⁾	

35) 張安은 銘文을 작성한 자로 전하는데, 그는 낙랑·대방 계통의 백제계 유민으로 추정된다.

36) 難沮는 元慶의 高祖父이다. 원경의 祖父인 汗이 당나라에 귀부하였고, 그 선조는 皇帝의 자손으로 전한다.

37) 相國寺의 瑞溪周鳳이 文明二年(1470)에 찬술한 『善隣國寶記』 卷上에 인용된 『海外國記』에 禰軍의 관등이 佐平으로 전한다

〈표 4〉에 전하는 왕씨 성을 가진 인물들은 대체로 중국계 백제인들이었다고 판단된다. 낙랑·대방군 고지에서 발견된 銘文塚에 會景, 張君, 張撫夷단 인물이 보인다. 이러한 인물들을 유념한다면, 〈표 4〉에서 언급된 會邁 및 張安, 張威, 張茂, 張塞 등은 낙랑·대방유민의 후손들로 보아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繼體天皇 10년(516) 9월에 왜에 파견된 五經博士가 漢高安茂라고 하였다. 여기서 ‘漢’은 고안무가 漢族系였음을 알려 주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고안무가 한족계라면, 高壽와 高興, 高分屋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추정된다.⁴¹⁾ 또한 450년에 劉宋에 사신으로 파견된 西河太守 馮野夫 역시 그의 성씨로 보아 중국계나 그 후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낙랑·대방 고지에서 발견된 자료에서 段氏, 楊氏, 丁氏姓을 가진 인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⁴²⁾ 이를 주목하건대, 楊茂, 段楊爾, 丁有陀 등도 역시 중국계 백제인이었다고 추론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근래에 왜에 불교를 전해준 奴喇斯致契가 姬氏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를 중국계 백제인으로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⁴³⁾ 이밖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지만, 일반적인 백제 성씨로 보기 어려운 陳明, 慕遺, 馬安丁 등도 중국계 백제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한편 예군묘지명에서 예군의 선조가 永嘉(307~312) 말에 난리를 피하여 백제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나, 예식진과 예소사, 예인수 등의 묘지명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종래에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예씨 가문이 중국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⁴⁾ 그러나 禰氏가 대성 8족의 하나가 아니었던 점과 예군묘지명에서 예군의 선조가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건대, 예씨 일족이 중국에서 일찍이 백제로 건너와 一家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⁴⁵⁾ 난원경의 선조는 皇帝의 자손이었고, 진법자의 먼 조상이 한이 쇠약해진 말년에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르렀다고 전하는데, 막연하게 난원경과 진법자의 선조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건대, 두 가문의 선조가 중국에서 백제로 건너왔다고 附會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계 백제인 가운데 다수가 중국 왕조에 사신으로 파견되었고, 五經博士와 易博士, 曆博士, 醫博士, 採藥師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다수였음을 살필 수 있다. 黑齒常之墓誌銘에 따르

(김영관, 「중국 발견 백제유민 禰氏 가족 묘지명 검토」, 『신라사학보』 24, 2012; 권덕영, 「백제 유민 禰氏一族 묘지명에 대한 斷想」, 『사학연구』 105, 2012; 최상기, 「禰軍墓誌의 연구동향과 전망」, 『목간과 문자』 12, 2014).

38) 禰君墓誌銘에 예군은 熊津 嶋夷人이며, 그 선조가 永嘉(307~312) 末에 난리를 피하여 동쪽으로 나아가 마침내 一家를 이루었으며, 曾祖父는 福, 祖父는 響, 父親은 善이라고 전한다. 한편 예군의 조카인 禰素士墓誌銘에는 7代祖 할아버지 崇이 淮水와 泗水에서 배를 띄워 遼陽으로 가서 마침내 熊川인이 되었고, 소사의 증조 眞은 帶方州刺史, 할아버지 善은 수나라 萊州刺史, 아버지 식진은 歸德將軍 및 東明州刺史, 左威衛大將軍을 역임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禰軍의 동생인 禰憲進墓誌銘에서는 예식진의 할아버지는 佐平 響多, 아버지는 佐平 思善이라고 하였다. 현재 예소사의 아들인 禰仁秀墓誌銘도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39) 陳法子墓誌銘에 법자의 먼 조상이 漢이 쇠약해진 말년에 큰 바다를 건너 熊浦에 이르러 가문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40) 曾祖 春은 太學正 恩率, 祖父 德止는 麻連大郡將 達率, 父親 微之는 馬徒郡 參司軍 德率을 역임하였다.

41) 梧野里 21호분에서 출토된 漆器 銘文에 ‘高孝通’이 보이고, 평양 정백동 2호분에서 ‘高常賢印’의 銀印이 발견되었는데, 고씨가 낙랑·대방유민이었음을 시사해주는 또 다른 자료로서 참고된다.

42) 정오동 3호분에서 출토된 漆器 銘文에 ‘段是作/段是作周帛三月用’이, 정오동 1호분에서 출토된 漆器 銘文에 ‘丁大利’가, 일제 시기의 黃海道 信川郡 信川面 館村里에서 출토된 銘文塚에 ‘□□楊氏造記’가 전한다.

43) 김창석, 「중국계 인물의 백제 유입과 활동 양상」, 『역사문화연구』 60, 2016, 80쪽.

44) 최상기, 「백제 멸망 이후 예씨(禰氏) 일족의 위상」, 『역사와 현실』 101, 2016, 78~79쪽.

45) 김영심, 「묘지명과 문헌 자료를 통해 본 백제 멸망 전후 禰氏의 동향」, 『역사학연구』 52, 2013, 209~210쪽.

면, 흑치상지는 본래 扶餘氏였는데, 그의 조상이 黑齒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黑齒를 氏로 삼았으며, 증조부 大文, 조부 德顯, 父親 沙次, 본인 常之 모두 達率에 이르렀다고 한다.⁴⁶⁾ 禰軍墓誌銘에 따르면, 예군의 曾祖父 福, 祖父 譽, 父親 善이 모두 관등이 佐平이었다고 하며, 다른 기록에서 예군의 관등 역시 佐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흑치상지 가문은 대대로 달솔, 예군 가문은 대대로 좌평까지 승진한 것으로 보건대, 7세기 백제에서 가문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존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좌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가문은 신라의 진골신분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백제의 최고 신분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측면에서 좌평의 관등을 수여받은 왕효린의 존재는 중국계 백제인 가운데 최고 신분의 가문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왜에 불교를 전해준 怒唎斯致契가 중국계 백제인이라고 한다면, 達率의 관등을 수여받은 중국계 백제인 가문도 여럿 존재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 가운데 중국계 백제인이 존재하였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3년(509) 봄 2월 기록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 任那의 일본 縣邑에 있는 백제 백성으로 도망가서 호적에서 빠진 지 3·4代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백제로 옮기고 호적에 편제하였다.’고 전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唐令과 日本令에도 보인다.⁴⁷⁾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위의 기록은 일본에서 당령을 수용하여 율령을 정비한 大寶令 이후에 윤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일본서기』 권19 欽明天皇 원년(540) 8월조에 ‘秦人, 漢人 등 여러 나라에서 投化하여 온 사람을 불러 모아 國郡에 안치하고 호적을 편성하였다(編貫戶籍). 진인의 호수가 총 7,053호였다.’고 전하는 사실을 참조하건대, 『日本書紀』에 전하는 ‘貫’을 호적과 연계시켜 이해하는 전통은 대보령 반포 이전으로 소급하여도 좋지 않을까 한다.⁴⁸⁾ 그리고 일본 縣邑이란 표현도 엄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한데, 아마도 가야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추정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위의 기록을 6세기 초반에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제 백성들을 推刷하여 백제로 옮기고 호적을 작성한 사실을 반영한 자료로서 이해하여도 크게 잘못이 아닐 것이다.⁴⁹⁾ 백제에서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推刷하여 다시 백제의 호적에 편제한 사실을 통해서 외국에서 도래한 귀화인의 경우도 戶籍에 편제하여 백제의 일반 백성과 동일하게 대우해주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부여 궁남지에서 발견된 목간의 목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西部後巷 已達巳斯丁 依□□□□丁

歸人 中口四 小口二 邁羅城法利源 水田五形

46)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편, 『黑齒常之墓誌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고구려·백제·낙랑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47) 『唐令』 戶令第9, “諸浮盜絕貫 及部曲客女奴婢 被放爲良者 附寬鄉 若訴良得免 於所在附貫 若欲還本屬自聽.” 『律令』 戶令第8, “凡浮盜絕貫 及家人奴婢 被放爲良 若訴良得免者 並於所在附貫 若欲還本屬自聽.”

仁井田陞, 앞의 책, 1997, 1023쪽.

48) 노중국, 「호구 파악과 호적의 정비」,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2010, 213쪽.

49) 전덕재,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와 그 변천」, 『백제문화』 47, 2012, 113쪽.

위의 목간은 點口部나 각 행정단위별로 관리하던 가호의 호구와 토지 보유 상황을 기록한 문서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巴達已斯는 戶主로 추정되며, 依□□□□는 그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의 부인이 아니라면, 그의 아들이나 동생이었을 것이다.⁵⁰⁾ 이 목간에 보이는 歸人은 일반적으로 귀화인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⁵¹⁾ 만약에 목서가 '歸人'임이 확실하다면, 이 목간은 백제에 귀화한 도래인을 일반 백성과 동일하게 호적에 편제하여 대우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의달사사가 邁羅城 法利源에 水田 五形을 소유한 것을 통하여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도 귀화인의 정착을 위하여 그들에게 토지를 분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정 기간 동안 조세와 부역을 경감시켜주었음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중국계 외래인의 사회적 역할

『三國史記』樂志에 '晉(東晉)나라 사람이 七絃琴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악기인 줄은 알았으나 그 음악과 타는 법을 몰랐으므로 나라 사람 중에 그 음을 탈 수 있는 자를 찾으면서 후한 상을 걸었다. 그때에 제2상 왕산악이 그 본래 모양을 보존하면서 자못 法制를 고쳐서 만들고, 아울러 100곡을 제작하여 연주하였다. 이때 검은 학이 와서 춤을 추었으므로 드디어 玄鶴琴이라고 이름하였는데, 후에는 다만 玄琴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앞에서 왕산악은 낙랑·대방유민이거나 그 후예였다고 언급하였다. 왕산악이 칠현금을 현학금으로 改造한 것에서 낙랑·대방유민과 중국계 망명인들이 중국의 최신 문화를 고구려에 소개·전래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와 함께 『論語』 목간이 발견되었다. 初元 4年은 기원전 45년에 해당한다. 정백동 364호분 주인공은 호구부의 작성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 屬吏이거나 五經을 담당한 관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⁵²⁾ 『논어』 목간은 이미 낙랑·대방군 지배층과 그 후손들이 유학에 밝았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 『南齊書』高句驪傳에 고구려에서 '五經을 읽을 줄 안다(知讀五經).'고 전한다. 『周書』고려전에는 '서적으로는 五經 및 三史, 『三國志』와 『晉陽秋』가 있다.'고 전한다. 『남제서』고구려국전은 5세기 후반 장수왕대의 사정을 반영한 것인데, 당시 고구려인들이 五經을 널리 읽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인이 유학의 경전을 널리 읽게 된 계기는 372년 태학의 설립에서 찾을 수 있다. 영양왕 11년(600)에 『新集』 5권을 편찬한 李文眞이 太學博士였다. 이를 염두에 두건대, 태학에서는 유학의 경전을 주로 교육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⁵³⁾ 4세기에 유학의 경전에 밝은 낙랑·대방유민들과 더불어 중국계 망명인들이 고구려에 한자문화와 유학을 널리 보급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372년에 유학의 경전을 가르치는 太學을 설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 발견된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와 함께 『論語』 목간은 낙랑군에서 중국 내

50) 전덕재, 앞의 책, 2006, 215~217쪽.

51) 근래에 '歸'를 '婦'로 판독하는 견해(平川南, 「日本古代の地方木簡と羅州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10, 181~195쪽)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52) 이성시·김경호·윤용구, 「평양 정백동 364호분 출토 竹簡 『論語』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4, 2009.

53) 이정빈, 「고구려 태학 설립의 배경과 성격」, 『한국교육사학』 36: 4, 2014, 167~173쪽.

지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문자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사실은 낙랑·대방 고지에서 발견된 銘文磚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할 수 있다. 한편 『說文解字』에 樂浪挈令이란 표현이 보이고 있다.⁵⁴⁾ 여겨서 挈令이란 특정 官府나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特別令으로서 황제의 승인을 거쳐 입법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樂浪挈令은 낙랑군에서만 사용된 특별한 법령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許愼이 100년에 『설문해자』를 편찬하였으므로, 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낙랑군에서 마련한 挈令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漢書』 지리지에서 고조선 멸망 후에 犯禁이 60여 조로 늘었다고 언급하였는데,⁵⁵⁾ 종래에 이것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漢律로 낙랑군의 吏民을 통치한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어 참조된다.⁵⁶⁾ 아무튼 낙랑설령의 시행은 漢의 낙랑군 통치가 율령과 더불어 문서행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주목된다.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진한시대에 향촌이나 군사조직의 말단까지 문서행정이 관철되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급관리는 물론 일정한 수의 일반민까지 간단한 문자교육을 받아 문서행정에 동원되었으며, 그 범위는 중원의 漢人系뿐만 아니라 한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邊郡에까지 적용되었다고 한다.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를 통하여 낙랑군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⁵⁷⁾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의 낙랑군 통치가 律令體系와 文書行政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험은 낙랑·대방유민을 통하여 고구려에 전수되었을 것이고, 373년에 율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반포한 배경의 하나로서 律令體系와 文書行政을 경험하였던 낙랑·대방유민들이 고구려에 들어와 그러한 경험을 널리 전파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4~5세기에 낙랑·대방유민인 왕산악이 고위직인 第二相에 임명된 것도 바로 그가 유학과 문서행정 등에 두루 밝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 고구려가 낙랑·대방군을 병합한 이후에 그 유민들이 백제로 이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들에 의하여 백제에 유학이 보급되었음은 물론이다. 4세기 후반인 근초고왕대에 낙랑·대방유민의 후예인 고흥이 博士로서 『書記』를 편찬하였다. 『日本書紀』卷10 應神天皇 15년 8월 기록에서 阿直伎가 經典을 잘 읽었으므로 태자인 菟道稚郎子の 스승으로 삼았고, 아직기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博士로서 王仁를 추천하였다고 하였으며, 16년 2월 기록에서는 王仁이 왜에 이르자, 태자가 그를 스승으로 삼아 여러 典籍을 배워 통달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한편 『古事記』에는 照古王(近肖古王) 때에 阿知吉師를 왜에 파견하였고, 또한 이때에 賢人으로서 和邇吉師를 파견하여 『論語』 10권과 『천자문』 1권 등 모두 11권을 보냈다고 전한다.⁵⁸⁾ 또한 『續日本紀』卷40 桓武天皇 延曆 10년 4월 기록에는 백제 久素王(近仇首王)이 漢 高祖의 후손인 鸞을 선조로 둔 王狗의 손자인 王仁을 왜에 파견하였다고 전한다.⁵⁹⁾ 『續日本紀』의 기록에 전하는 내용은 王

54) 『說文解字』, “糸部 糸式樂浪挈令 織 從糸從式.”

55) 『漢書』 地理志,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藏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 寢多至六十餘條.”

56) 이성규,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6, 117~122쪽.

57) 김병준, 「낙랑군의 한자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2011.

58) 『古事記』 中卷 應神天皇, “此之御世 定賜海部山部山守部伊勢部也. 亦作劔池 亦新羅人參渡來 是以 建内宿 命引率 爲役之堤池 而作百濟池.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牝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 阿直史等之) 亦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論語十卷千字文一卷 十一卷付是人貢進(此和邇吉師者文首等) 又貢上手人韓鍛 名卓素 亦服西素二人也.”

59) 『續日本紀』 卷40 桓武天皇 延曆 10년 4월, “戊戌 左大史 正六位上 文忌寸最弟 播磨少目 正八位上 武生連眞象等言 文忌寸等

仁의 후손들이 그의 가계를 漢 高祖와 연결시켜 부회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王仁이 漢人系 낙랑·대방유민 또는 그 후손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日本書紀』에서는 應神天皇 25년(284)에, 『古事記』에서는 근초고왕대에, 『續日本紀』에서는 근구수왕대에 王仁(和邇吉師)을 왜에 파견하였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근초고왕대 또는 근구수왕대인 4세기 후반에 왕인을 왜에 파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박사 고흥이 활동할 때에 박사로서 아직기가 경전을 잘 읽었고, 여러 전적에 두루 통달한 왕인이 왜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던 셈이 된다.

아직기가 낙랑·대방유민이었는데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흥과 왕인은 낙랑·대방유민 또는 그 후손이었음이 분명하다. 박사였던 두 사람의 행적을 통하여 유학의 경전에 통달한 낙랑·대방유민들이 백제에 들어가 유학을 널리 보급시켰음을 추론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은 6세기 전반에 일본에 파견된 漢人系 낙랑·대방유민의 후손인 段楊爾와 高安茂가 五經博士로서 왜에 파견되었다는 점, 6세기 중반에 왜에 파견된 五經博士 王柳貴와 馬安丁, 易博士인 王道良, 曆博士인 王保孫 등이 모두 漢人系 낙랑·대방유민의 후손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4~5세기에 낙랑·대방유민 및 중국계 망명인들이 고구려와 백제에 한자문화 또는 유학의 보급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중국 왕조에 파견한 사신단 가운데 중국계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송서』 고구려국전에 424년에 장수왕이 長史 馬婁를, 455년에 장사 董藤을 송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송서』 백제국전에 백제에서 424년에 長史 張威를, 450년에 臺使 馮野夫를, 『魏書』 백제전에 司馬 張茂를, 『남제서』 백제전에 長史 高達, 司馬 楊茂, 參軍 會邁, 司馬 王茂, 參軍 張塞와 陳明, 長史 慕遺를 각기 宋, 北魏, 南齊에 파견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백제가 수나라에 王辯那, 佐平 王孝鄰를 사신으로 파견하였음이 확인된다. 남북조시대에 고구려와 백제에서 장사와 사마, 참군의 직임을 가진 중국계 인물들을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하였음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에 지방정권의 핵심적인 권력기구로 등장한 幕府는 府主와 屬官으로 구성되었다. 속관 중에서 長史와 司馬, 參軍이 上級佐吏로서 府主를 보좌하며, 막부의 실무행정을 담당하였고, 府主가 관할하는 구역 내 太守 등 郡縣의 守令을 겸임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 長史는 수석 佐吏로서 막부 구역 내 首郡의 太守를 겸하였으며, 府主의 有故時에 그의 권한을 대행하였다고 알려졌다.⁶⁰⁾ 남북조시대에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 왕조와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 중국 왕조는 조공을 바친 주변 국가의 지배자에게 막부를 개설할 수 있는 都督諸軍事, 將軍, 刺史, 校尉 등의 官爵을 수여하였다. 예를 들어 宋은 고구려 장수왕에게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驪王樂浪公이란 관작을 수여하였고, 백제 전지왕에게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이란 관작을 수여한 바 있다. 이처럼 고구려왕과 백제왕이 중국 왕조로부터 막부를 개설할 수

元有二家 東文稱直 西文号首 相比行事 其來遠焉。今東文學家 既登宿禰 西文漏恩 猶沈忌寸。最弟等 幸逢明時 不蒙曲察 歷代之後 申理無由 伏望 同賜榮號 永貽孫謀。有勅責其本系 最弟等言 漢高帝之後日鸞 鸞之後王狗 轉至百濟 百濟久素王時 聖朝遣使 徵召文人。久素王即以狗孫王仁貢焉。是文武生等之祖也。於是 最弟及眞象等八人 賜姓宿禰。”

60) 김종완, 『중국남북조사연구 - 조공·책봉관계를 중심으로 -』, 일조각, 1995, 65~75쪽.

있는 관직을 수여받자, 幕府의 屬官인 長史, 司馬, 參軍과 더불어 여러 郡의 太守 관직을 사신에게 사여한 다음, 중국 왕조에 파견한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백제뿐만 아니라 吐谷渾, 林邑, 呵羅單, 倭 등도 사신을 長史로 임명하여 중국 왕조에 파견하였음이 확인된다.⁶¹⁾

남북조시대에 고구려와 백제에서 장사와 사마, 참군에 중국계 인물들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중국 왕조에 사신으로 파견한 셈인데, 일단 중국 왕조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중국계 관리가 사신으로 선발되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계 인물이 사신단의 일원으로 선발된 이유는 단지 이것만은 아니었다. 책봉·조공 형식의 외교에서는 조공국의 上表와 중국 皇帝의 詔書, 조공국 지배자에 대한 관작과 이것을 증명하는 印綬의 사여 등이 기본적인 의례절차로 설정되었다. 上表와 詔書, 관작의 수여 모두 한자를 사용하였음은 물론이다.⁶²⁾ 종래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공·책봉관계의 외교형식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⁶³⁾ 조공·책봉관계의 외교형식 때문에 한자문화가 주변 여러 나라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외교문서 작성에 儒學과 文學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 필요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중국계 망명인 및 낙랑·대방유민이 고구려와 백제에 유학을 보급시키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신라 말에 중국에서 實貢科에 합격한 崔致遠이 진성여왕을 대신하여 다수의 表箋을 代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최치원에 버금가는 학문실력을 갖춘 인물들이 表疏를 작성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실력을 갖춘 인물 대부분이 중국에서 망명한 인사 및 낙랑·대방유민 또는 그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장사와 사마, 참군 등으로 임명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왕조와의 외교에서 유학에 통달하고 외교문서를 능숙하게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실력을 갖춘 인물을 필요로 하였고, 고구려와 백제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주로 중국계 망명인 또는 漢人系 낙랑·대방유민이었기 때문에 중국 왕조에 파견된 사신 가운데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수나라에 중국계인 왕변나와 왕효린을 사신으로 파견한 사례에서 보듯이, 백제는 7세기 전반에도 여전히 중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중국계 인사를 사신으로 파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Ⅲ. 통일신라시대 중국인 귀화관료의 현황과 역할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거서간대의 기록에 보이는 瓠公이 본래 왜인이었다고 전하고, 또한 벌휴이사금 10년 6월 기록에 왜인이 크게 굶주려,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신라가 침략한 왜인들을 사로잡았다는 기록도 발견된다.⁶⁴⁾ 한편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서 한인이나

61) 김종완, 위의 책, 67쪽.

62) 이성규,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과 한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66쪽.

63) 西嶋定生, 「漢字の傳來とその變容」, 『倭國の出現-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日本』, 東京大學出版會, 1999, 175~176쪽.

64) 『삼국사기』 신라본기제3 나물이사금 38년 5월 기록에 신라가 獬山에서 왜군을 공격하여 죽이거나 사로잡음이 매우 많았다

낙랑 계통의 주민들이 진한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음을 시사해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⁶⁵⁾ 낙랑 계통 주민 가운데 조선유민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일부 중국계 사람들이 신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언급한 자료들은 사로국의 구성원들이 韓族 이외에 다양한 족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신라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한 6세기 전반 이후에 신라로 들어온 外來人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6세기 전반 이전에 도래한 중국계나 왜계 인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7세기 후반 나당전쟁과정에서 당나라 사람 다수가 신라에 머물러 살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으나, 그들에 관한 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양태나 동향에 대해서 살피기 어렵다. 중대와 하대에 중국계와 왜계 인물들이 집단적으로 신라에 들어와 정착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문헌과 금석문에 전하는 인명의 분석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신라로 이주한 중국계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다음의 <표 5>이다.

<표 5> 문헌과 금석문에 전하는 중국계 신라인

姓名	年代	관등 또는 관직	출처	비고
姚湍	771년	待詔 大奈麻	聖德大王神鍾銘	
馮渲	859년	奉宸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憲安王이 풍선 등을 보내 普照禪師에게 迦智山寺로 옮기도록 청하였음.
姚克一	872년	崇文臺郎 兼春宮 中事省/中舍人/ 侍中兼侍書學士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 大安寺 寂忍禪師塔碑/ 『삼국사기』 열전제8 金生	侍中은 侍郎의 誤記임.
馮恕行	헌강왕대 (875~886)	宣敎省 副使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지증대사의 제자로서 왕경에서 봉암사까지 대사를 송환하는 임무 수행.
徐善行	885년	新羅國使 判官	『日本三代實錄』 卷47 孝光天皇 仁和 원년 6월 2일	
楊晉方	886년	內供奉 一吉干	雙溪寺 眞鑑禪師碑	眞鑑禪師의 탑비 건립 주청.
王巨仁	888년	大耶州 文士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1 진성여왕 2년 2월;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眞聖女大王 居陞知	『삼국사기』에는 巨仁으로만 나옴.

고 전하고, 실성이사금 4년 4월 기록에 왜군을 격파하여 3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고 전한다.

65)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서 인용한 『魏略』에 진한지역에서 목재를 벌채하다가 韓人에게 공격받아 노비가 된 漢人 1,500명에 관한 내용이 보이고, 옛 亡人들이 秦의 부역을 피하여 韓國으로 오자,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갈라 주었다거나 또는 낙랑 사람들을 阿殘이라고 하였는데, 동방의 사람들은 나를 阿라고 불렀으니, 낙랑 사람이 본래 자기 무리의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姓名	年代	관등 또는 관직	출처	비고
安處玄	888년	東宮 內養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	
楊穎	889년	宿衛學生	奏請宿衛學生還蕃狀	
王輅	893년	東宮官 奉食郎	深源寺 秀澈和尚塔碑 ⁶⁶⁾	
王逢規	924년	泉州節度使, 知康州使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2 경명왕 8년 정월; 경애왕 4년 4월	後唐에 조공을 바침. 후당 明宗이 왕봉규를懷化大將軍으로 책봉.
王淑長	下代		鳳巖寺 靜眞大師圓悟塔碑	靜眞大師 兢讓의 祖父, 부친은 亮吉로서 公州人임.
李德順	上同		淨土寺 法鏡大師慈鏡塔碑	法鏡大師의 父. ⁶⁷⁾
張末榮	上同		五龍寺 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	五龍大師의 父. ⁶⁸⁾
崔樂權	上同		無爲寺 先覺大師塔碑	先覺大師의 父. ⁶⁹⁾
崔全	上同		太子寺 朗空大師白月棲雲塔碑	朗空大師의 祖父. ⁷⁰⁾
崔昌元	上同		雙溪寺 眞鑑禪師碑	眞鑑禪師의 父. ⁷¹⁾

고구려와 백제에서 활동한王氏들을 대체로 중국계 인사로 분류하였는데, 신라에서 활동한 왕씨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짐작된다. 다만 泉州節度使 또는 知康州使인 王逢規는 강주, 즉 지금의 진주지역을 통치하는 호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계 인사가 강주지역을 통령하였다고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단언할 수 없지만, 王建의 사례처럼, 왕봉규가 스스로 왕씨를 자칭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姚와 馮姓은 중국 성씨가 분명하므로, 姚克一과 姚湍, 馮恕行과 馮渲은 모두 중국에서 신라에 귀화한 중국인이거나 그 후손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楊氏, 安氏, 徐氏도 신라의 전통적인 6部姓이 아니었던 바, 楊晉方과 楊穎, 安處玄, 徐善行 역시 중국인 귀화관료 또는 그 후손들로 보아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한편 李德順, 張末榮, 崔樂權, 崔全, 崔昌元은 금석문에서 그의 조상들이 중국에서 신라로 건너온 사람이라고 언급한 사례에 해당한다.

66) 秀澈和尚이 893년에 입적하자, 진성여왕이 王輅에게 명령을 내려 화상의 문도들을 위로하게 하고 秀澈이라는 諡號와 棲伽寶月이라는 塔號를 내렸다.

67) 淨土寺 法鏡大師塔碑에 法鏡大師 玄暉의 먼 조상은 당나라가 요동을 정벌할 때 신라에 도착하여 苦役으로 돌아갈 것을 잊고 전주 남원 사람이 되었다고 전한다.

68) 五龍寺 法鏡大師塔碑에 法鏡大師의 선조는 南陽의 名門으로 大漢의 갈래였으며, 먼 조상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었다고 전한다.

69) 無爲寺 先覺大師塔碑에 先覺大師 迥微의 선조는 博陵 땅의 귀족이었고, 신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머물고 武州의 ○○ 사람이 되었다고 전한다.

70) 太子寺 朗空大師塔碑에 朗空大師 行寂의 先代는 周나라 朝廷 尙父의 먼 자손이자 제나라 丁公의 먼 후예인데, 그 후손이 신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머물렀다고 전한다.

71) 雙溪寺 眞鑑禪師碑에 眞鑑禪師 慧昭의 선조는 漢族으로 山東의 高官이었고, 수나라 군사로서 고구려에 왔다가 항복하여 고구려에서 살다가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신라의 金馬 사람이 되었다고 전한다.

『삼국사기』 김생열전에서 姚克一이 侍中兼侍書學士였다고 전하지만, 여기서 侍中은 (執事)侍郎의 誤記로 이해되고 있다.⁷²⁾ 요극일이 집사사랑에 임명된 것으로 보건대, 그는 6두품 신분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인 귀화관료 가운데 진골귀족에 편입된 존재는 발견되지 않는다. 폐쇄적인 신분제를 유지하였던 신라에서 중국인 귀화관료들이 진골귀족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요단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경문왕과 헌강왕대에 활동하였는데, 이것은 경덕왕·헌강왕대에 한화정책을 추진한 사실과⁷³⁾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금석문에 전하는 중국에서 건너온 禪僧들의 선조 가운데 王淑長과 亮吉은 관직에 복무하였고, 낭공대사의 아버지 崔佩常은 무예를 익혀서 군에 들어가 관직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진감선사의 아버지 崔昌元은 재가자임에도 출가승의 수행이 있었고, 법경대사(정토사)의 아버지 李德順은 노자와 주역에 밝았으며, 선각대사의 아버지 崔樂權은 노장을 익혔다고 하였다. 이밖에 낭공대사의 조부인 崔叢은 세상을 피해 영화를 마다하고 정신을 수양하였다고 한다. 골품제 때문에 관리로 진출하는 길이 막혔거나 또는 고위 관리로 진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중국계 인물들이 불교 또는 노장사상에 심취하여 관조적인 생활을 하였던 정황을 엿보게 해주는 측면으로서 유의된다고 하겠다.

禪師의 선조를 제외하고, 중국인 귀화관료 또는 그 후손들의 대부분은 國王과 東宮 직속의 近侍職에 임명되었음이 확인된다. 寶林寺 普照禪師塔碑에 859년에 현안왕이 道俗使 僧正 連訓法師과 奉宸 馮澄 등을 보내 왕의 뜻을 설명하며 普照國師 體澄을 전남 장흥에 위치한 迦智山寺로 옮기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당나라 則天武后 때에 控鶴府를 奉宸府를 고쳤으며,⁷⁴⁾ 봉신부에 供奉이란 관직이 존재하였다. 신라에서 봉신부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馮澄이 현안왕의 뜻을 보조국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보건대, 그는 국왕 측근의 근시직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황룡사9층목탑사리함기에 경문왕 12년(872) 당시 姚克一이 ‘崇文臺郎 兼春宮中事省’이라고 전한다. 春宮은 동궁의 별칭이다. 한편 『삼국사기』 직관지에 경덕왕대에 洗宅을 中事省으로 개칭하였다가 후에 復故하였다고 전한다. 위의 기록을 통해 경문왕 12년 이전에 다시 세택을 중사성으로 개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직관지에서 동궁관 세택에 大舍 4인, 從舍知 2인이 있었다고 하였다. 사리함기에는 요극일이 大舍인지 從舍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崇文臺에서 가장 높은 직임인 郎을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건대, 그는 대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⁷⁵⁾ 한편 경문왕 12년(872)에 건립된 대안사 적인선사탑비에 요극일이 中舍人이라고 전하는데, 中舍人을 中書(省)舍人으로 이해하고 있다.⁷⁶⁾

당나라의 경우 崇文館은 東宮 예하의 관청이었는데, 貞觀 연간(627~649)에 學士·直學士를 설치하였다고 한다.⁷⁷⁾ 그런데 신라의 승문대는 동궁 예하가 아니라 내성 예하의 관청이었다. 당에서 승문관은 경적도서를

72) 이기백, 「신라 하대의 집사성」, 『신라정치사학회연구』, 일조각, 1974, 190쪽.

73) 전덕재, 「신라 경문왕·헌강왕대 한화정책의 추진과 그 한계」, 『동양학』 50, 2011.

74) 『舊唐書』卷6 本紀第6 則天武后 聖曆 2년 2월, “初為龍臣 張易之及其弟昌宗 置控鶴府官員 尋改為奉宸府 班在御史大夫下.”

75) 『삼국사기』 직관지에 崇文臺에는 郎 1인, 從舍知 2인, 史 4인이 있었다고 전한다.

76) 이기동, 「나말여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대 - 중세적 측근정치의 지향 -」,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239쪽.

77) 『大唐六典』卷26 崇文館, “崇文館學士(魏文帝 招大儒之士 始置崇文館……自貞觀中 崇文館有學士直學士 員不常置 掌教授學生等)……崇文館學士 掌刊正經籍圖書 以教授諸生 其課試學選 如弘文館.”

관리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관서였다. 주로 황족이나 고위 관리의 자손을 교육하였다고 알려졌다.⁷⁸⁾ 직관지에 내성 예하에 성덕왕 20년(721)에 所內學生을 두었다고 전한다.⁷⁹⁾ 소내학생은 주로 왕족이나 고위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되었고, 승문대에서 그들을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승문대에서 왕족이나 고위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된 소내학생을 교육하였다고 한다면, 승문대라기면서 춘궁 중사성의 관리, 즉 中書(中事)舍人을 겸직한 요극일이 태자의 교육을 담당한 관리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삼국사기』 김생열전에 요극일이 벼슬이 侍中兼侍書學士에 이르렀다고 전하는데, 여기서 侍中은 侍郎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요극일은 경문왕 12년(872) 8월 14일에 건립한 大安寺 寂忍禪師塔碑의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3개월 뒤인 11월 25일에 완성된 皇龍寺九層木塔舍利函記도 썼다. 이밖에 朴居勿이 撰한 三郎寺碑文을 썼다고 알려졌다. 요극일이 명필가였기 때문에 시서학사에 임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문왕대에 요극일은 春宮 中事省(洗宅)의 大舍로서 주로 태자를 측근에서 보필하며 글을 筆寫하거나 또는 書法을 가르쳤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요극일이 집사부 시랑에 임명된 것은 헌강왕대로 보이는데, 헌강왕은 태자 시절에 그를 보좌한 요극일을 발탁하여 집사부 시랑에 등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深源寺 秀徹和尚塔碑에 景福 2년(893, 진성여왕 7)에 수철화상이 향년 79세로 입적하자, 진성여왕이 東宮官 奉食郎 王輅를 보내 교서를 전달하고 애도하게 하였다고 전한다.⁸⁰⁾ 종래에 奉食郎을 동궁의 음식 관련 업무를 맡은 관리로 이해하는 견해,⁸¹⁾ 東宮 御龍省 또는 中事省 소속 近侍職의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가⁸²⁾ 제기된 바 있다. 東宮官 奉食郎 王輅가 진성여왕의 敎書를 전달한 것으로 보건대, 봉식랑은 태자 측근에서 보좌하는 근시직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진성여왕 2년(888)에 건립된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에 東宮內養 安處玄이 보인다. 종래에 內養은 舍人을 가리키며, 동궁 내양을 中事省 內養에 주묵하여 동궁 중사성(세택) 소속 근시직으로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⁸³⁾ 또한 봉암사 지증대사탑비에 馮恕行이 宣敎省副使였고,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에 楊晉方이 內供奉이었다고 전한다. 선교성은 발해의 宣詔省과 마찬가지로 국왕의 敎書를 선포하는 관부였다고 추정되므로, 선교성부사 역시 국왕의 근시직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內供奉 역시 국왕을 측근에서 보좌한 근시직의 하나였음은 물론이다.

姚克一과 馮恕行, 楊晉方은 헌강왕을 측근에서 보좌한 대표적인 중국인 귀화관료 또는 그 후손으로 볼 수 있는데, 헌강왕이 중국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전한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8) 『新唐書』卷44 志34 選舉志, “東宮有崇文館生二十人, 以皇親麻以上親 皇太后皇后大功以上親 宰相及散官一品功臣身食封者 京官職事從三品中書黃門侍郎之子爲之.”

79) 『삼국사기』 잡지제8 직관중 내성, “所內學生 聖德王二十年置.”

80) 深源寺 秀徹和尚塔碑, “景福二年 裴賓四日 召其徒曰 死將至矣 吾欲行焉 諸子勉旃 宜游佛庭 其□風狂雨□ 浮雲坐聚散 須知朗月行西東 言已化去 享齡七十九 歷夏五十八 異矣哉 □□水積魚歸 便至林傾鳥散 聞俗緣大歸 住瑩原 追感遺者 灑泣慷慨 讓王顧不遺 哭諸門外 以傳東宮官奉食郎王輅 飛敎慰問 □承遺訓 用報□ 贈諡曰秀澈 塔號楞伽寶月.”

81) 이문기, 「신라 효공왕(饒)의 태자책봉과 왕위계승」, 『역사교육논집』 39, 2007, 196쪽.

82) 이승현, 「신라의 동궁제도」, 『한국고대사연구』 55, 2009, 226쪽.

83) 이가동, 앞의 논문, 1984, 238~239쪽.

登州의 商人 馬行餘가 바다로 돌아 崑山縣으로 가려고 하다가 桐廬縣을 지날 때에 마침 서풍을 만나 바람을 타고 신라국에 도착하였다. 신라국의 임금이 행여가 중국으로부터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賓禮로써 접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夷狄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해마다 유학을 익히는 자를 天闕(당의 조정)에 천거하여, 그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영예롭게 귀국하면, 나는 반드시 녹봉을 후하게 주었다. 이에 공자의 도가 이적과 중화에 널리 퍼졌음을 알게 하였다.’고 하고는, 마행여와 더불어 經籍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에 마행여가 자리를 피하면서 말하기를, ‘용렬하고 누추한 장사치가 몸은 비록 중국 땅에 오래 살았지만 농사짓는 법이나 배웠을 뿐 詩書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詩書를 익히고 禮律을 밝히는 것은 사대부들이나 하는 일이지, 소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고 말하고는, 끝내 사양하면서 배를 타고 扶桑 땅을 떠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신라의 임금이 의아해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중국 사람들이 모두 다 典教에 밝을 것으로 생각하였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俗人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마행여가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스스로 衣食만 탐하다가 우매해져서 학문의 도를 알지 못하여 외국 오랑캐에게 모욕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雲溪友議』 卷上 新羅誚).⁸⁴⁾

『운계우의』는 당나라 僖宗(873~888) 때의 사람인 范攄의 문집이다. 따라서 마행여가 신라에 漂着한 시기는 870~880년대로 볼 수 있다. 헌강왕은 최치원을 國土로서 대우하였고, 그를 초빙하기 위하여 김인규와 최서원을 입회남사로 파견하였다.⁸⁵⁾ 이와 같이 최치원을 우대한 헌강왕의 태도를 염두에 둔다면,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이 귀국하면 녹봉을 후하게 주었다고 언급한 신라 임금은 875년에서 886년까지 재위한 헌강왕임이 분명해 보인다.

위의 기록에서 헌강왕은 중국 사람들은 모두 다 典教에 밝을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헌강왕은 유학의 진흥에 크게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華嚴經社會願文에⁸⁶⁾ ‘선왕(헌강왕)께서 桓己로써 임금 노릇을 하시고, 백성을 보기를 자식같이 여겼으며,……魯道를 향하여 四通五達의 큰 길을 열어서 널리 儒風을 떨쳤다(伏惟先王 桓己爲君 視民如子……闡康莊於魯道 廣振儒風).’고 전한다. 또한 봉암사 지증대사탑비에 太傅大王(헌강왕)이 ‘華風(중국의 풍속)으로서 弊風을 一掃하였다(以華風掃弊).’라고 전한다. 실제로 헌강왕대에 관직을 漢式으로 개정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⁸⁷⁾ 더구나 성주사 남혜

84) 『雲溪友議』 卷上 新羅誚, “登州賈者馬行餘轉海擬取崑山 路適桐廬 時遇西風而吹到新羅國. 新羅國君聞行餘中國而至 接以賓禮 乃曰吾雖夷狄之邦 歲有習儒者 舉於天闕 登第榮歸 吾必祿之且厚. 乃知孔子之道 被於華夏(夷華?)乎. 因與行餘論及經籍 行餘避位曰 庸陋賈豎長養 雖在中華 但聞土地所宜 不識詩書之義熟 詩書明禮律者 其唯士大夫乎 非小人之事也. 遂乃言辭揚舡背扶桑而去. 新羅君誚曰 吾以中國之人 盡嫻典教 不謂尚有無知之 俗者. 行餘還至鄉井 自以貪饕百味好衣 愚昧不知學道 為新羅所嗤.” 한편 판본에 따라 新羅誚를 夷君誚라고 표기한 경우도 발견된다. 『해동역사』 제40권 교빙지8 표류조에 신라초가 전하는데, 여기에서 崑山을 崑山으로, 華夏를 夷華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여기서는 본래 『雲溪友議』에서 ‘夷華’를 ‘華夏’로 오기하였다고 간주하고 해석하였다.

85) 『계원필경』 권20에 실린 謝許歸觀啓에 ‘일찍이 온 員外郎君이 尊旨를 받들어 전하였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원외랑군은 同書에 실린 祭嶠山神文에 ‘新羅國入淮南使檢校倉部員外郎守翰林郎’으로 전하는 金仁圭를 가리킨다. 그리고 謝賜弟棲遠錢狀에 따르면, 최치원의 堂弟 棲遠이 新羅國入淮南使錄事로써 家信(최치원의 집에서 보낸 편지)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尊旨는 헌강왕이 최치원의 귀국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교지로 추정되고, 게다가 치원의 堂弟 서원이 家信을 가지고 입회남사 녹사로서 김인규를 따라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건대, 입회남사 김인규의 임무는 당시 회남도의 수도인 揚州에 머물고 있는 최치원의 귀국을 종용하고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86) 華嚴寺事蹟에서는 奉爲憲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 불국사사적에서는 上宰國威大臣等奉爲憲康大王結華嚴經社願文이라고 전한다.

화상답비와 謝賜詔書兩函表에 현강왕이 중국어를 매우 잘 하였다고 언급하였다.⁸⁸⁾ 한편 후자에서 ‘(현강왕의) 말씀(身文)은 풍속을 빗냈고, 글(心畫)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매양 藩屏의 신하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직 壺中의 객을 좇기를 원하였으며, 시가를 읊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며 (마음) 깊이 한탄하는 바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⁸⁹⁾ 당나라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이기 때문에 문면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봉암사 지증대사답비에 태부대왕(현강왕)이 華風으로써 弊風을 一掃하였다고 전하므로 표문의 언급이 결코 구두선에 그쳤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할 듯하다.⁹⁰⁾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현강왕이 중화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한화정책을 전개하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그가 중국에서 渡來한 學人들을 적극 등용한 측면은 쉽게 이해되는 바라 하겠다. 현강왕은 학문실력이 뛰어난 빈공과 합격자와 중국계 인사들을 두루 등용하여 학문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그들을 활용하여 親屬 또는 骨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문실력을 고려하여 관리를 등용하는, 즉 유학과 문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을 관리로 등용하는 방향으로 관료제 운영의 변화를 꾀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현강왕의 개혁정치는 정강왕과 진성여왕대에 진골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맺지 못하였지만, 현강왕대 이후 중국인 귀화관리를 등용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졌으며, 그들과 신라인 문인들은 고려에 중용되어 골품제를 부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관료제 운영의 확립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⁹¹⁾

IV. 왜계·서역계 외래인의 존재양태와 역할

1. 왜계 외래인의 현황과 역할

고구려와 신라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정비 이후에 왜계 관료들이 활동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 반면에 『일본서기』에서 왜계 백제관료에 관한 기록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왜계 백제관료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표 6>이다.

<표 6>에서 언급한 사람들 이외에 穗積臣押山과 日本 斯那奴阿比多, 奈率 己連도 왜계 백제관료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고,⁹²⁾ 達率 日羅, 既酒臣(許勢臣), 印支彌, 內臣(有至臣), 河內部阿斯比多 등까지 왜계 백제관료로 이해한 견해도 제기되었다.⁹³⁾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을 수용하지 않고, 백제의 관등과 관

87) 전덕재, 앞의 논문, 2011, 66~74쪽.

88) 성주사 낭혜화상답비에 太傅王(현강왕)이 ‘雅善華言’하였고, 謝賜詔書兩函表에 ‘而乃臣亡兄太傅臣晟 生知老教 雅善秦言’하였다고 전한다.

89) 謝賜詔書兩函表, “故得身言耀俗 心畫超倫 每慙爲屏外之臣 唯願逐壺中之客 形于歌詠 深所歎嗟.”

90) 전덕재, 위의 논문, 82쪽.

91) 전덕재, 위의 논문, 80~88쪽.

92) 金鉉球, 『大和政權의 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67쪽.

93) 이재석, 앞의 논문, 2000, 538~553쪽.

〈표 6〉『日本書紀』에 보이는 倭系 백제관료

姓名	年代	관등·관직·소속 부	출처	비고
紀臣彌麻沙	541년	奈率	卷19 欽明天皇 2년 7월/ 5년 2월	安羅와 倭에 사신으로 파견됨. ⁹⁵⁾
物部連用奇多	541년	奈率	卷19 欽明天皇 5년 2월	彌麻沙와 함께 왜에 사신으로 파견됨.
物部麻奇牟	543년	施德	卷19 欽明天皇 4년 9월	
許勢奇麻	544년	奈率	卷19 欽明天皇 5년 3월	왜에 사신으로 파견됨.
物部奇非	544년	奈率	卷19 欽明天皇 5년 3월	上同
科野次酒	553년	上部, 德率, 內臣	卷19 欽明天皇 14년 정월	上同
科野新羅	553년	上部, 奈率	卷19 欽明天皇 14년 8월	上同
曰佐分屋 ⁹⁶⁾	554년	前部, 施德	卷19 欽明天皇 15년 정월	왜에 사신으로 파견됨.
物部烏	554년	上部, 奈率	卷19 欽明天皇 15년 2월	왜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구원병을 요청함.
物部莫奇武連	554년	東方領	卷19 欽明天皇 15년 12월	函山城(管山城) 전투 참가.

직을 수여받은 경우에만 왜계 백제관료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둔다. 『日本書紀』에 欽明天皇 2년(541)에서 15년(554) 사이의 기록에만 왜계 백제관료에 관한 정보가 전할 뿐이다. 그러나 『수서』 백제전에 백제에 중국 인뿐만 아니라 왜인들도 거주하였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건대, 554년 이후에도 계속 왜계 백제관료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바로 부여 쌍북리 102번지 출토 2번 목간이다. 이 목간의 앞면에 ‘那尔波連公’이 묵서되어 있다. ‘那尔波連公’은 왜계 백제관료였다고 이해하고 있다.⁹⁴⁾ 이에 따르면, 위의 목간은 백제 수도인 부여에 7세기에 왜계 백제관료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유력한 자료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왜계 관료 가운데 가장 높은 관직에 임명된 인물은 東方領인 物部莫奇武連이다.⁹⁷⁾ 백제에서 5方의 장관인 方領에 達率을 임명하였으므로⁹⁸⁾ 東方領인 物部莫奇武連 역시 달솔의 관등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黑齒常之가 達率까지 승진할 수 있는 가문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物部莫奇武連의 경우도 흑치상지의 경우와 마

94) 平川南, 「百濟 王都 出土 ‘連公’ 木簡 - 韓國 扶餘 雙北里遺蹟 1998年 出土 付札 -」,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3, 2009, 145~168쪽.

95) 『日本書紀』에는 欽明天皇 2년(541) 가을 7월에 紀臣 奈率 彌麻沙 등을 안라에 파견하였다고 전하고, 또 그 바로 뒤에 가을 7월에 紀臣 奈率 彌麻沙와 中部 奈率 己連을 왜에 파견하여 下韓과 任那의 정사를 아뢰고, 아울러 表를 올렸다고 전한다. 일반적으로 후자는 欽明天皇 3년 가을 7월 기사가 잘못 삽입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현구 등,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Ⅱ)』, 일지사, 2003, 143~144쪽).

96) 이재석, 「소위 왜계 백제관료와 야마토 왕권」,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에서 曰佐分屋을 왜계 백제관료로 분류한 것을 수용하였다.

97) 동방의 중심성은 得安城(충남 은진)이었다.

98) 『周書』 百濟傳,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郡將三人 以德率爲之. 方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찬가지였을 것이다. 현재까지 왜계 백제관료로서 좌평까지 승진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바, 그들 가운데 최고 신분에 편제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표 6>에서 백제가 6세기 중반에 왜계 백제관료를 주로 왜에 사신으로 파견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541년에 백제 성왕은 安羅의 日本府(安羅倭臣館)가 신라와 더불어 계책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前部 奈率 鼻利莫古와 紀臣 奈率 彌麻沙 등을 安羅에 보내, 신라에 온 任那의 執事를 불러 任那를 세울 것을 도모하게 하였으며, 별도로 그들이 安羅日本府의 河內直이 신라와 공모한 것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紀臣 奈率 彌麻沙와 物部連 奈率 用奇多 등을 왜에 보냈고, 543년 9월에 백제 성왕이 前部 奈率 眞牟貴文과 護德 己州己婁, 物部 施德 麻奇牟 등을 파견하여 扶南의 재물과 奴 2구를 바쳤으며, 544년 3월에 백제에서 奈率 阿毛得文, 許勢 奈率 奇麻, 物部 奈率 奇非 등을 왜에 보내 表를 올린 다음, 天皇에게 친신라계인 佐魯麻都를 본래 있었던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종래에 위와 같은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백제 성왕이 欽明天皇 2년(541)에서 5년(544)까지는 河內直, 佐魯麻都 등과 같은 安羅日本府의 反百濟의인 성향을 지닌 왜인을 추방하기 위하여 왜계 백제관료들을 안라 또는 왜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고 이해하기도 하였다.⁹⁹⁾ 나름대로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된다.

이후 『일본서기』에서 553년과 554년에 왜계 백제관료들이 집중적으로 왜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신라는 553년에 신라에게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겼다. 이에 백제는 왜 및 대가야와 연합하여 554년에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553년과 554년에 왜에 파견된 왜계 백제관료의 핵심 임무는 왜에 군사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553년 정월에 백제에서 上部 奈率 科野次酒, 扞率 禮塞敦 등을 왜에 보내 군사를 요청하였고, 또한 이 해 8월에 上部 奈率 科野新羅 등을 왜에 파견하여 군사 및 활, 말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554년에도 前部 施德 曰佐分屋, 上部 奈率 物部烏 등을 왜에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53년과 554년에 왜에 파견된 왜계 백제관료들은 주로 신라 관산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볼 수 있다. 백제 성왕은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후에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면서 왜의 군사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왜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왜계 백제관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왜계 백제관료 가운데 유일하게 관직을 수여받은 인물로 알려진 이가 바로 東方領 物部莫奇武連이다. 『일본서기』에 欽明天皇 15년(554) 12월 9일에 백제 성왕이 東方領 物部莫奇武連에게 東方의 군사를 이끌고 函山城, 즉 管山城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때 有至臣이 데리고 온 백성 竹斯 物部 莫奇委沙奇가 불화살을 쏘아 酉時에 성을 불태우고 빼앗았다고 전한다.¹⁰⁰⁾ 관산성전투에서 東方領 物部莫奇武連이 이끄는 東方의 군사들이 선봉에 서서 함산성(관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다음, 이후 太子 餘昌이 이끄는 본진이 관산성에 도착하여 그 근처인 久陀牟羅(옥천군 옥천읍)에 보루를 쌓고 주둔하여 신라군의 반격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래 백제 5方的 장관인 方領은 1,200명 이하 7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렸다고 알려졌다.

99) 笠井倭人, 「欽明朝における百濟の對外交」, 『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社, 1974, 132~136쪽.

100)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5년 12월,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臣先遣東方領物部莫奇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有至臣 所將來民竹斯物部莫奇委沙奇 能射火箭。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拔之 故遣軍使馳船奏聞。”

그런데 554년 12월 당시에 동방의 군대에는 왜군도 포함되었다. 관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동방의 군대도 백제·왜 연합군으로 편성하였음을 반영한다. 백제 성왕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왜계 백제관료를 동방령에 임명하여, 백제·왜 연합군으로 편성된 東方의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무튼 東方領 物部莫奇武連의 사례는 백제에서 왜계 백제관료를 단지 왜와 소통하기 위한 필요에서 등용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등용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2. 서역계 외래인의 현황과 존재양태



〈그림 1〉 노래하고 연주하는 서역인 토우(호림박물관 소장)

고구려에 서역인들이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살필 수 있다. 장천1호분의 백희기악도는 고구려에서 다양한 백희를 공연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연한 인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32인인데, 이 가운데 9명이 高鼻의 서역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안악 3호분의 수박도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은 커다란 매부리코에 턱이 긴 이국적인 모습이며, 비슷한 모습의 인물은 각저총의 씨름도, 무용총의 수박도에도 등장한다. 그리고 안악 3호분에는 발 끈 춤 동작을 하고 있는 무용수가 보이는데, 그 역시 서역인이 분명하다.¹⁰¹⁾

한편 5~6세기의 신라 고분에서 裝飾寶劍, 象嵌琉璃玉 목걸이, 다양한 琉璃容器 등 이른바 서역계 물품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와 더불어 경주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2명의 서역인을 묘사한 토우와 일자로 쪽 뺀어 있는 커다란 코와 깊은 눈을 가진 전형적인 胡人(남편)을 묘사한 夫婦像土偶가 발견되었다.¹⁰²⁾ 또한 최근에 월성 해자에서 6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터번을 머리에 두르고,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페르시아풍의 호복을 입은 소그드인 모습의 토우가 조사되었다.¹⁰³⁾ 서역인이 5~6세기에 신라에 來往하였음을 이러한 토우들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1987년에 경주시 황성동 524-1번지에 위치한 석실분을 발굴 조사하였는데, 이를 흔히 황성동 석실분이라고 부르며, 7세기 중·후반에 축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⁴⁾ 여기에서 胡人像을 비롯한 토용 여러 점이 발견되었다. 胡人俑은



〈그림 2〉 부부상토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101)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하여 전덕재, 『고구려의 놀이문화』,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2006a, 238~239쪽이 참조된다.

102) 김인희, 「신라 토우장식장경호와 동오(東吳) 혼병(魂瓶)을 통해 본 동중국해 사단향로 개척시기」, 『동아시아고대학』 32, 2013, 224쪽.

103) 「월성해자에서 나온 다양한 모양의 토우」, 연합뉴스, 2017년 5월 16일.

104)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경주 황성동 석실분』, 1993; 김대환, 「신라 왕경 고분의 분포와 체계 변화」, 『신라문화재학술논

뾰족한 모자를 쓰고 좁은 소매가 달린 團領袍와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고 있다. 투르판의 8세기 아스타나(Astana) 고분에서 胡人像과 胡人の頭像이 발견되었다. 황성동 석실분에서 출토된 호인용과 마찬가지로 둘 다 모두 뾰족하게 솟은 모자를 쓰고 검은 콧수염이 있으며, 깊은 눈과 높은 코를 가졌는데, 모두 소그드인으로 알려졌다. 황성동 석실분에서 출토된 토용 역시 소그드인으로 보이며, 짧은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턱수염이 있는 深目高鼻의 패륜 석인상 역시 소그드인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¹⁰⁵⁾ 황성동 석실분 출토 胡人俑, 패륜의 석인상은 7세기 중·후반 이래 신라에 서역인이 들어와 활동하였음을 짐작케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신라에 들어온 서역인들이 잠시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였는지, 아니면 계속 신라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5~6세기 신라로 들어온 서역인들은 고구려 장천1호분 백희기악도에 보이는 서역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랑악단의 일원으로서 신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연하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한다.

이밖에 이슬람의 문헌에 무슬림들이 신라에 들어와 정착하였다고 전한다.¹⁰⁶⁾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동남해안지역에 무슬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한다.¹⁰⁷⁾ 828년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이래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남해안지역을 연결하는 무역로, 즉 남부 斜斷航路를 통하여¹⁰⁸⁾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9세기 후반에 중국 동남해안지역에 정착한 무슬림들이 남부 횡단항로를 이용하여 신라에 진출하였고, 이들에 관한 내용이 이슬람문헌에 실렸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¹⁰⁹⁾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馬上才를 비롯한 백희잡기를 공연하는 서역인들을 발견할 수 있고, 5~6세기에 신라



〈그림 127〉 황성동 석실분
출토 토용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문집』 27, 2006, 210~211쪽.

105) 김용문, 「신 출토자료에 보이는 소그드 복식」, 『실�크로드의 삶과 문화』, 사계절, 2006.

106) 무슬림들이 신라에 들어와 정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슬람문헌에 대해서는 김정위, 「중세 중동문헌에 비친 한국상」, 『한국사연구』 16, 1977, 34~46쪽 및 무함마드 깐수(정수일), 『신라·서역교류사』, 단국대 출판부, 1992, 314~320쪽이 참조된다.

107) 이희수, 「이슬람교의 中國轉入과 회족공동체의 태동」, 『민족과 문화』 5,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1997, 95~99쪽.

108) 남부 사단항로는 나주의 會津에서 출발하여 흑산도를 거쳐 黑水洋을 지나 長江(양자강) 또는 折江 하구에 도착하는 루트를 가리킨다. 이 항로는 신라 하대에 이르러 널리 활용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권덕영, 『고대한중외교사- 遣唐使研究』, 일조각, 1997, 204~205쪽).

109) 김창석,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113~116쪽.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차용당·망해사조에 헌강왕이 울산지역에 행차하였을 때에 차용을 만났다는 설화가 전한다. 조선시대의 『악학궤범』에서 그를 '넓은 이마, 무성한 눈썹, 우그러진 귀, 붉은 모양의 얼굴, 우뚝 솟은 코, 앞으로 튀어나온 턱, 앞으로 기울어진 어깨를 지닌 인물'로 묘사하였는데, 이에서 차용을 서역계통의 인물로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차용을 唐代에 중국에서 신라로 온 이슬람계 인물로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용범, 「차용설화의 일고찰 - 唐代 이슬람상인과 신라 -」, 『진단학보』 32, 31~34쪽).

에서도 서역인 유랑악인들이 百戲를 공연하였음을 胡人 모습을 묘사한 土偶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高句麗歌曲에 芝栖가 있었고, 舞曲에 歌芝栖가 있었다. 그런데 동일한 명칭이 우즈베키스탄 부하라(Bukhara)지방에 위치한 安國의 음악에도 보이고 있다.¹¹⁰⁾ 고구려의 가무곡이 서역지방의 그것을 수용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자료다. 이밖에 당나라 十部伎의 하나인 高麗伎에 胡旋舞가 있었다고 전하는데,¹¹¹⁾ 호선무는 서역지방의 康國(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유래된 춤이다.¹¹²⁾ 한편 『三國史記』樂志에 崔致遠이 5개의 歌舞戲를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지은 鄉樂雜詠이 전하는데, 5개의 歌舞 가운데 金丸을 제외한 月顚, 束毒, 大面, 狻猊가 서역에서 전래되었다고 알려졌다.¹¹³⁾ 이밖에 삼국과 발해에서 전래된 일본 고대 고려악 가운데 서역에서 유래된 악곡이 退·進宿德, 長保樂, 桔槔, 納蘇利, 蘇志摩利, 歸德侯, 崑崙八仙, 地久 등이었다.¹¹⁴⁾ 서역인들이 직접 고구려와 신라에 이르러 서역의 가무를 전래해주었든, 아니면 중국을 통하여 서역의 가무가 간접적으로 고구려와 신라에 전래되었든 간에 서역의 문화가 신라에 전해져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만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싶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서역인 유랑악인들이 고구려와 신라에 들어와서 다양한 百戲와 舞樂을 공연하였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백희와 무악은 東西古今, 신분의 貴賤과 男女老少를 망라하여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었다. 고구려와 신라 사람들은 서역인들이 공연하는 백희가무를 관람하고 즐겼음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와 신라 사람들도 서역인을 직접 만나 서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역의 문화가 전래되면서 우리의 고대문화는 한층 더 다채로워졌을 것이다. 나아가 삼국인들은 서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咀嚼消化하여 자기 것으로 재창출한 다음, 이것을 다시 중국이나 일본에 전해주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 수·당대의 高麗伎, 고대 일본의 高麗樂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고려기와 고려악은 중국인과 일본인의 사랑을 받아 널리 공연되었다. 이에서 고구려의 문화가 외국인도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보편성과 국제성을 지녔음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¹¹⁵⁾ 결과적으로 삼국에 渡來한 流浪樂人들은 異國의 문화를 삼국에 전해주어 삼국의 문화 발전에 나름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국의 문화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게 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고 평가하여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¹¹⁶⁾

110) 『隋書』권15 志10 音樂下, “高麗歌曲有芝栖 舞曲有歌芝栖.”

『文獻通考』권148 樂考21 西戎, “安國 其樂器……歌曲有附葦單時歌芝栖 舞曲有末奚舞芝栖 解曲有居桓.”

111) 『新唐書』卷21 志第11 禮樂, “高麗伎 有彈箏……胡旋舞 舞者立毬上旋轉如風.”

112) 趙世驤, 『絲路之路樂舞大觀』, 新疆美術攝影出版社, 1997, 5쪽.

113) 전덕재, 「한국 고대 서역문화의 수용에 대한 고찰-백희잡기의 수용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8, 2006b, 17~22쪽.

114) 전덕재, 「고대 일본의 고려악에 대한 기초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0, 2006c.

115) 전덕재, 앞의 논문, 2006a, 248~250쪽.

116) 백제에 불교를 전해준 摩羅難陀는 胡僧으로 알려졌다. 한편 胡僧으로 추정되는 墨胡子가 450년대 눌지왕 때에 신라 一善郡에 이르러 불교를 전파하였고, 또한 『三國遺事』卷第3 興法第3 我道基羅條에 목호자와 형상이 유사한 我道和尚이 신라에 들어와 불교를 전파하였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진흥왕 37년(576)에 安弘法師가 隋에 들어가 求法하였다가 胡僧 毗摩羅 등 2명의 승려와 함께 귀국하여서 稜伽·勝鬘經 및 佛舍利를 바쳤다고 전한다. 그런데 『해동고승전』에서는 진평왕 27년(605)에 安舍이 于闐의 沙門 毘摩真諦, 沙門 農加陀 등과 함께 귀국하였다고 하였고, 『해동고승전』에 인용된 崔致遠 所撰의 義相傳에서는 진평왕 建福 42년(625)에 義湘法師가 태어났는데, 이 해에 東方聖人 安弘法師가 西國의 승려 3명, 漢僧 2인과 함께 당으로부터 귀국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후자의注에서 이르기를, “北天竺 烏菟國 毘摩羅真諦

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삼국에 이주한 異邦人, 즉 외래인들의 현황, 존재양태,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본문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고구려에 중국계 인사들이 적지 않게 망명하였고, 낙랑군과 대방군 병합 이후 그 유민들이 대거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4~5세기에 낙랑과 대방 고지에 거주한 중국계 인사들은 낙랑·대방유민 및 중국에서 渡來한 漢族系 주민들의 통치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나름의 세력기반을 보유하며 존재하였다. 또한 6세기 중반 무렵까지 고구려가 중국에서 망명한 인사들의 세력기반을 그대로 존중해주었음을 시사해주는 자료가 발견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개별화되어 고구려의 지배층으로 편제되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고위 관직까지 승진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에 중국계 流移民과 전쟁포로도 상당수 존재하였는데, 고구려에서는 그들에게 토지를 분급하거나 일정 기간 부세를 경감시켜주거나 遊女 등을 그들의 처로 삼아 고구려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였다.

고구려가 낙랑군과 대방군을 병합한 이후, 낙랑·대방유민들이 대거 백제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백제에 한자문화와 더불어 유학을 전래해주었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 가문은 백제의 최고 신분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개별적으로 歸化한 외래인의 경우, 그들에게 토지를 분급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부세를 경감시켜 준 다음, 백제의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戶籍에 편제하여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대체로 중국계 망명 인사와 낙랑·대방유민들은 유학과 문학, 그리고 문서행정에 조예가 깊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학문을 고구려에 전래해주어 소수림왕대에 태학의 설립과 율령의 반포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로 이주한 낙랑·대방유민과 그 후예들 역시 백제의 유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이 확인된다. 고구려와 백제에서 낙랑·대방유민 또는 중국계 인물들을 주로 중국 왕조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그들이 중국어에 능통하였던 점과 아울러 외교문서를 능숙하게 작성할 수 있는 학문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신으로 발탁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 이전과 중대에 신라에 도래한 이방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하지 않는다. 중국인 귀화관료의 활동상은 주로 신라 하대의 문헌과 금석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자료에 보이는 중국인 귀화관료들은 주로 국왕 또는 동궁의 近侍職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문왕과 헌강왕대에 한화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

는 나이가 44세, 農伽陀는 46세, 摩豆羅國 佛陀僧伽는 46세이며, 이들은 52國을 경유하여 중국에 들어왔고, 마침내 동쪽의 皇龍寺에 머물며 旃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였는데, 이때 신라 스님인 曇和가 받아썼으며, 오래지 않아 漢僧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왕에게 청하였으므로 진평왕이 허락하여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安弘이 수나라에 들어가 求法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진평왕 37년(576)에 그가 신라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안함은 안흥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며, 『해동고승전』의 기술처럼 진평왕 27년(605)에 귀국하였다고 봄이 옳을 듯싶다(신종원, 「안흥과 신라불국토설」,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232~237쪽). 호승의 國籍과 관련하여 최치원은 북천축, 즉 인도 출신이라고 하였으나 覺誨는 중국 신장성 위구르자치구에 위치한 호탄의 우전국이라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비록 호승들이 인도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52國을 경유하여 중국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서역의 여러 나라를 경유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서역계와 한계 승려들이 백제·신라에 불교를 전해주거나 또는 불교의 보급과 교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정에서 유학과 문학에 조예가 깊은 중국인 귀화관료들이 적지 않게 등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에서 이주한 禪師의 선조 가운데 일부는 노장사상에 심취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그들이 골품제로 인하여 정치적 진출이 제한되어 관조적인 삶을 살았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 當代에 유학과 조예가 깊은 중국인 귀화관료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후예들은 고려에 중용되어 학문실력에 의거하여 관리를 등용하는 내용의 관료제 운영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서 6세기 중반에 반백제계 왜인을 견제하거나 왜에 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백제에서 왜계 백제관료들을 주로 사신으로 임명하였음을 살필 수 있고, 아울러 군사적 목적으로 왜계 백제관료를 활용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서역인으로 구성된 流浪樂人들이 고구려에 來往하여 서역의 음악과 문화를 전래해주었고, 신라에서도 그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에 渡來한 서역계 流浪樂人들은 異國의 문화를 삼국에 전해주어 삼국의 문화 발전에 나름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국의 문화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게 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이 본고에서 살핀 핵심 요지이다. 본고에서는 외래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였다고 짐작되는 말갈족·선비족 등 유목민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라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외래인이 끼친 정치·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가야와 발해의 사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서 발견되는 일부 倭系 고분과 전남지역에서 발견되는 前方後圓墳의 被葬者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다. 이밖에 삼국에 사신으로 온 인물들의 현황과 그들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천착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본고의 한계는 차후에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본고가 향후 고대사회 외래인 연구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참고문헌〉

- 공석구,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김락기, 「고구려의 ‘遊人’에 대하여」, 『백산학보』 56, 2000.
 김미경,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진출과 그 지배형태」, 『학림』 17, 1996.
 김미경, 「고구려 전기의 대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병준, 「낙랑군의 한자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2011.
 김영관, 「중국 발견 백제유민 禰氏 가족 묘지명 검토」, 『신라사학보』 24, 2012.
 김영심, 「묘지명과 문헌 자료를 통해 본 백제 멸망 전후 禰氏의 동향」, 『역사학연구』 52, 2013.
 김용문, 「신 출토자료에 보이는 소그드 복식」, 『실크로드의 삶과 문화』, 사계절, 2006.
 김인희, 「신라 토우장식장경호와 동오(東吳) 혼병(魂甕)을 통해 본 동중국해 사단항로 개척시기」, 『동아시아

고대학』 32, 2013.

김정위, 「중세 중동문헌에 비친 한국상」, 『한국사연구』 16, 1977.

김종완, 『중국남북조사연구 - 조공 · 책봉관계를 중심으로 -』, 일조각, 1995.

김창석, 「중국계 인물의 백제 유입과 활동 양상」, 『역사문화연구』 60, 2016.

김창석,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노중국, 「호구 파악과 호적의 정비」,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2010.

무함마드 칸수(정수일), 『신라 · 서역교류사』, 단국대 출판부, 1992.

백길남, 「4~5세기 百濟의 中國系 流移民의 수용과 太守號」, 『동방학지』 172, 2015.

西嶋定生, 「漢字の傳來とその變容」, 『倭國の出現 - 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日本』, 東京大學出版會, 1999.

안정준, 「6세기 고구려의 北魏末 流移民 수용과 ‘遊人」, 『동방학지』 170, 2015.

안정준, 「고구려의 낙랑 · 대방군 고지 지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안정준, 「당대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 고구려 유민 일족의 현황과 그 가계 기술 - 고구려 유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제언 -」, 『역사와 현실』 101, 2016.

여호규, 「4세기 고구려의 낙랑 · 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2009.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여호규,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고구려 말기의 中裏制와 中央官制」, 『백제문화』 54, 2016.

이기동, 「나말여초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대」,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이성규, 「한국 고대 국가의 형성과 한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이성규,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6.

이성시 · 김정호 · 윤용구, 「평양 정백동 364호분 출토 竹簡 『論語』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4, 2009.

이성제,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2005.

이재석, 「소위 왜계백제관료와 아파토 왕권」,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이희수, 「이슬람교의 中國轉入과 회족공동체의 태동」, 『민족과 문화』 5,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1997.

임기환, 「4세기 고구려의 낙랑 · 대방지역 경영」, 『역사학보』 147, 1995.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笠井倭人, 「欽明朝における百濟の對外外交」, 『古代の日本と朝鮮』, 學生社, 1974.

전덕재, 「고구려의 놀이문화 - 백희잡기를 중심으로 -」,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고구려 연구재단, 2006.

전덕재, 「고대 일본의 고려약에 대한 기초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0, 2006.

전덕재, 「한국 고대 서역문화의 수용에 대한 고찰 - 백희잡기의 수용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 58, 2006.

전덕재, 「신라 경문왕 · 헌강왕대 한화정책의 추진과 그 한계」, 『동양학』 50, 2011.

전덕재,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와 그 변천」, 『백제문화』 47, 2012.

정재윤,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사충』 77, 2012.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11.

최상기, 「禰軍墓誌의 연구동향과 전망」, 『목간과 문자』 12, 2014.

최상기, 「백제 멸망 이후 예씨(禰氏) 일족의 위상」, 『역사와 현실』 101, 2016.

平川南, 「百濟 王都 出土 ‘連公’ 木簡－韓國 扶餘 雙北里遺蹟 1998年 出土 付札－」,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3, 2009.

* 이 논문은 2017년 5월 22일에 투고되어,
2017년 6월 22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7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7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Existence and Social Role of the Foreigners in Ancient Korean Society

Jeon, Deogjae*

This article examines the status, existence and the social role of immigrants who migrated to Goguryeo, Baekje, and Silla. A substantial number of people from China defected to Goguryeo, and after the annexation of Lelang and Daifang Commandery, a number of their people were incorporated into Goguryeo. Goguryeo respected power base of people from China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owever, the people from China gradually became part of the governing body in Goguryeo and some of them were even promoted to senior government positions. To induce the stable settlement of war prisoners and the Chinese immigrants, Goguryeo distributed land and reduced their tax burden for some years. The immigrants of Lelang and Daifang, who emigrated to Baekje, introduced Chinese character culture as well as the Confucianism to that State. Some of them were incorporated into the highest status of Baekje. Also when it comes to foreigners who became naturalized individually, Baekje supervised them by adding them to the household register. Chinese immigrants and the people of Lelang and Daifang, and their descendant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Confucianism in Goguryeo and Baekje. They were widely chosen as envoys to China, since not only they were proficient in Chinese, but also they possessed academic skills to write the diplomatic documents. In the late 9th centur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Sinicization policy, King Kyeongmoon and King Heongang of Shilla hired many of the naturalized Chinese bureaucrats, who had deep knowledge in study and Confucianism. At that time of Shilla, political influence of the naturalized Chinese bureaucrats was limited. However, their descendants great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Koryeo's bureaucracy by formulating a meritocratic hiring policy, thus Koryeo's government officials were appointed based on their academic abilities. It can be confirmed that in the mid-6th century, King Seong of Baekje sent Baekje's bureaucrats from Wa to that State as envoys. He dispatched them for the purpose of holding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anti-Wa bureaucrats in check or requesting Wa's military assistance. Also, it can be confirmed that he hired some people from Wa as Baekje's officials for the military purposes. Mural paintings and clay dolls of the 4th-6th centuries suggest that wandering the Western regions musicians visited Goguryeo and Silla at that time. They performed the entertainment and dance music. By introducing the foreign culture, the western regions people not only contributed to the cultural development of the three kingdoms but also played a part in the development of ancient culture's international and universal character.

[Key Words] Foreigners from China, Displaced of Lelang and Daifang Commandery, Baekje bureaucrats from Wa, Western regions people, Naturalized Chinese bureaucrats

